

교육언저리잡지

발행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대표전화 02-2051-8600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 편집·디자인 플랫



2021년 교육활동자료집
교육언저리잡지

서울특별시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대표전화 02-2051-8600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

2021년 드림센터 교육팀 교육활동자료집

교육언저리잡지

CONTENTS

greeting

01 배움이 있는 삶

4 여는 글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때

교사역량강화

- 7 느슨하게, 결과는 없이 보냈던 1년
- 8 역량강화 명상이라는 씬
- 10 역량강화 생각을 정리하는 씬(사례슈퍼비전)
- 12 독서모임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

요즘이슈

- 14 대안교육 관련 법 제정의 역사와 의미
- 1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의견



02 만남이 있는 삶



나는 ~로 배운다!

- 22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꿈예학교 김슬기)
- 24 나에게 꿈예학교는 자신감이다 (꿈예학교 심동진)
- 26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른다 (이룸스쿨 정희람)
- 28 미디어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이룸스쿨 정윤소)
- 30 우리는 알바로 배운다!! (꿈예학교 이승우, 임형진)
- 32 나는 관심과 경험으로 배운다 (꿈예학교 김민혁)
- 34 졸업생 만남 나, 대안학교 졸업생이다!
- 41 학생에게 배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현장스케치

- 45 이룸스쿨 1학기 학습결과공유회 내일 다른 학교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 48 꿈예학교 1학기 개별프로젝트 발표회 코로나도 막을 수 없다!
- 50 점프-업 코스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더 Jump-Up 한다!
- 52 봉사활동 우리는 깐부장아! - 함께해서 더 즐거운 봉사활동 이야기
- 55 이룸스쿨 동아리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지!
- 58 꿈예학교 퍼실리테이션 진로교육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활동을 정한다!
- 62 언제나교육해DREAM 총결산 다시 보여DREAM
- 64 드림발표회 2020 드림발표회를 추억하며

문화생활

- 68 MOVIE & BOOK

게임

- 70 가로세로 낱말퍼즐
- 72 숨은그림찾기

03 재미가 있는 삶



2021년 교육활동자료집

교육언저리잡지

발행처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팀 발행인 김해영 글쓴이 드림센터 교육팀 기획 박경아, 김현수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전화 02-2051-8600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 디자인 플랫폼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때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노력하면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가 쉽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각자의 처지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정상적인 사회로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해봅니다.

오랫동안 교육을 해 온 저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육은 없고 사육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나 가정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돈을 잘 버는 대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서 학생들이나 자녀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사육을 하면서 교육이라고 우기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포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어른들이 참 비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성장시키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상식적인 사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육으로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육으로 신나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인 어른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장

김해영

배움이 있는 삶

교사역량강화	느슨하게, 결과는 없이 보냈던 1년 역량강화 명상이라는 씬 역량강화 생각을 정리하는 씬(사례슈퍼비전) 독서모임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
요즘이슈	대안교육 관련 법 제정의 역사와 의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의견



느슨하게, 결과는 없이 보냈던 1년

작년 교육팀 교사들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사업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버거우니 우리 딱 1년만 쉬어가자”

그래서 올해 교사역량강화 사업의 주제는 ‘교사의 쉬’이었습니다.

그런데 ‘쉬’에 대한 합의 없이 넘어가려다 보니 주제는 길을 잃고 갈팡질팡이었습니다. 웬지 너무 쉬다고 하면 결재를 올릴 때 눈치가 보이고, 어떤 식의 교육은 교사 각자에게 다른 방식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 상황 속에서 담당자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이 시점,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사에게 쉬이란 무엇일까요?

- A1.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혹은 활동.
 쉬이 없으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 A2. 무념무상이요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침대에 누워 폰 하거나 TV 보거나
 뒹굴뒹굴 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충전하기.

이처럼 여전히 답변이 엇갈리는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쉬일 수도, 일일 수도 있겠지만 1년 동안 저마다의 의견을 들으며 하고 싶었던 것, 갑자기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했던 건 ‘느슨한 계획’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에게 말했듯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과정을 들여다보자.’, ‘인생은 어차피 길어, 너만의 속도로 가렴.’이라는 말들이 어울리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유형의 존재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1년 동안 교사들의 가슴 속에 남은 무형의 존재가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잠시 쉬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잘 쉬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상이라는 심



교사에게 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겨울방학, 담당자는 결국 우리 근처에 있는 자료들을 뒤지다 작년 이룸스쿨의 명상 수업을 기억해 냈습니다. 당시 명상이 눈감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알기만하고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담당자는 선생님께 전해들은 수업 내용을 읽으며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여 시간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을 제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쉬려고 명상을 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큰 숙제를 받아든 것 같은 마음으로 교사들과 급히 논의를 했고, 명상에 대한 ‘맛보기’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팀 교사들이 맞본 명상의 세계,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깨달음을 찾으려 했던 그 시간을 함께 경험해보실까요?



명상이란?

명상이란 단어는 마치 종고 활동에 가까운 느낌이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란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이라는 뜻으로 우리 각자 복잡한 삶 속에서 개인이 오롯이 자신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복잡함을 덜어내고 싶을 때 어딘가 훌쩍 떠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졌던 생각의 시간들이 여러분 일상 속의 명상이었을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

- 1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리에 앉습니다.
(기본은 두 다리를 포개 가부좌를 하는 것이지만 좌식이든 입식이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조용한 음악 혹은 향, 꽃등의 자연물을 가져다 놓는 것도 좋습니다.)
- 2 자리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워버립니다.
- 3 신체 각각의 부위에 주의를 모으며 오감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 4 마음속 고요함, 불편함, 즐거움, 혼란함 등도 만나봅니다.
- 5 괴로움으로부터 여유로워지는 틈을 만들고 발견합니다.
- 6 알아차림의 파도타기를 배우고 연습합니다.
- 7 나에 대해, 나 아닌 것에 대해 물음을 던집니다.
- 8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일어납니다.
- 9 물음을 던지고 깨어나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 10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틈, 공간을 발견하고 머무르며 자유로워집니다.
- 11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나고 알아갑니다.

명상을 안내하는 자료

2006년 ‘Peaceful Warrior’라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된 책으로 체조 챔피언 댄 밀먼이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써내려간 에세이. 전미 국가대표 체조선수로서 전도유망한 댄 밀먼은 사고로 체조를 그만두고 우울과 무기력 속에 슬럼프를 겪다가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스승을 만나는 이야기로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단련하여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준다.



밀 줄긋기

‘자네의 마음이 자네의 곤경이라네’

‘명상에는 두 개의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하나는 통찰이고, 이는 일어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야. 나머지 하나는 항복, 일어나는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라네.’

명상워크숍을 마치는 교사들의 소감

- 첸코** 이들 동안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명상에 대해 깊이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블러** 명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해 물어 봐야 한다는 깨달음을 계속해서 나의 삶속에서 던지고 찾아나가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덤덤** 내 안의 것을 보고 비워내려 한 시도가 좋았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명상과 사색을 채울 것인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 구찌** ‘아는 것은 지식이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 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면서 조금씩 실천해나가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 민지** 바쁘게 일상을 살아나가느라 잊고 있던 ‘나’에 대해 잠시 멈춰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것, 평범한 일상은 없다는 것, 결국 내 삶을 만드는 것은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뭔가를 쫓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라브** 아직도 눈을 감고 있으면 잡 생각이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집중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작은 느낌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그 느낌 이 재미있었습니다.
- 다이아몬드**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명상’ 주제가 사실 언제 어디서든 일어 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어렵듯하게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



생각을 정리하는 쉽

사 례 슈 퍼 비 전



2021년 9월 25일(토)
3시간의 사례 슈퍼비전을
마치며...

저 대신 답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교육팀 내 대안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처음 슈퍼비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는 것이 가능할까? 올해 주제는 쉽이라고 하는데 그냥 쉬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인원제한으로 인해 어디서 맘 편히 쉴 수도 즐길 수도 없었고 다른 교사 분께서 제안하신 도자기 등의 공예 테라피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끌려가듯이 이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6월에 하기로 했던 워크숍은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휴교 등을 하면서 여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마저도 미루어져 모두 백신을 맞은 후인 9월에 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취소되면 좋겠다 싶었지만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상을 엮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일단 워크숍에 열심히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일 오신 전문가 선생님은 포스도 남다르시고 경력도 대단해 보이셨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주시면서도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며 다루는 사례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끊어내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포스가 ㄷㄷ 호랑이 같은 눈빛이셨어요.)

교육팀 교사들은 매년 다양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을 만나면서 더욱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더 큰 고민에 휩싸여 괴롭기도 합니다. 올해 교사역량강화 사업이 쉽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만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따로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코로나 방역의 문제와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 별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그간 우리가 갖고 있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생각을 정리하는 형태의 쉽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바로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이에 대한 조언을 받는 자리를 말이지요.

교육·상담 용어로는 ‘슈퍼비전’이라고 말하는 이번 쉽이 교사들에게는 어떤 쉽이었을지 교육팀 교사 1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생생한 소감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학생에 대한 키워드를 이야기해보라던 말씀입니다. 사례에 대해 다양하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키워드를 통해서 사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항상 학생들과 같이 지내다보니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객관화시키기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키워드로 보고 나니 어떤 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어렵긴 쉽긴 저를 포함한 교사들이 지쳐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런 지친 마음에 대한 위로를 얻고 궁금했던 지점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받는 시간이었다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답을 찾으려고 애쓰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가 선생님이 대신 고민해주고 실마리를 주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쉬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비록 제가 원하는 힘과는 다른 모습이었을지라도 바빴던 와중에 이렇게나마 시간을 내어 돌아보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스럽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림판으로 그린
워크숍 중의 교사들 ㅋㅋㅋ



선생님이 주신 TIP!

사례 다루기 전에 생각해볼 점

- 1 내가 이 학생이라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어떤 기본일까,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할까 등 그 학생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 2 대상 학생이 겪은(겪었던) 사건이 얼마나 크고 작았는지 보다(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 3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표현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언어로 바꿔주세요.
- 4 변하려고 했던 태도, 버티려고 했던 노력들을 발견하고 피드백 해주세요. 이 때 구체적으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 이룸스쿨 길잡이교사 김현수는 두 번의 독서모임에 참여했다.
여전히 어렵지만 자꾸만 빠져드는 독서모임 참여후기를 적어보았다.

교육의 현장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우리 교사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한가득인 것만 같다. 올해는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역시 한가득인 상태로 올해를 맞이한 이룸 교사들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가르친다는 것'을 차잎(茶葉)으로 점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보통 인간으로서는 중간도 하기 어려운 이 직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고 그 어려운 일을 어찌 해나가야 할지 섣이서 파헤치게 된 것이다.

같은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 명의 교사가 함께 이룸을 이끌어야 하는 시작점에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은 아주 의미있었다. 가르치려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공포에 대해 터놓기도 했다.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생한 만남과 일치의 커뮤니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방향을 설정하고, 서로 어떤 역할을 하며 채워야 할지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다. 묶은 반죽을 듬성듬성 찢낸 물드를 바닥에 탕 탕 쳐서 평평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랄까. 우리의 들쭉날쭉함이 어느 정도 결을 맞추고 정도를 조율해낸 것 같았다.

이룸의 독서모임이 끝나갈 무렵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더불어 '창조적 대화론'까지 두 권의 책을 다루는 외부 독서모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을 썩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또 한 번의 독서모임은 큰 도전이었지만 좀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라 느껴졌다.

참 용감했다. 두 번째 독서모임은 1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긴 호흡으로 진행되었고, 2주에 한 번씩 퇴근 후에 온라인에서 만남을 지속했다. 매번 읽어야하는 분량은 모임 당일 퇴근길에서야 겨우 호다닥 읽게 되고, 조금이라도 피곤한 날이면 '하기 싫다.', '오늘만 빠질까?' 하는 생각들이 온 마음을 뒤덮었다. 공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지 굉장히 거창하고 멋드러진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저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지적 열망이 나를 노트북 앞으로 불러 앉혔고, 어기적어기적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몰입해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자의 속도대로 천-천히, 꼼꼼하게 단어와 문장, 구절 간 숨겨진 의미까지 느끼려고 집중하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누구와 같이 하든 내 안의 생각, 느낌에 집중하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일터(공교육)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독서모임은 또 색다른 매력이 있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입장 차이, 생각 차이가 꽤 있었지만 어찌됐든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다보니 다들 참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걸 확인했다.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냈던 긴 독서모임으로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자라는 중이니 앞으로도 꾸준히 양식을 쌓아 쑥쑥 자라나보련다.

대안교육 관련 법 제정의 역사와 그 의미

교육팀장 박경아

2021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비인가 대안학교의 대표격 단체인 '대안교육연대'와 기독교계 대안학교를 대표하는 '한국대안학교기관연합회' 그리고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 27명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대안학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2021년 일 년 간 시행령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의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학교) 모두가 이 법의 제정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대안학교와 관련된 법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대안교육 종사자들은 왜 이 법의 제정에 이전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대안교육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대안교육과 관계된 법(조례)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대안학교와 관련된 법은 이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까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 대안교육운동과 그 결과로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나타나자 제도권 교육에서는 대안학교를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

한 법조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안에 대안학교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일부 대안학교를 특성화 중·고등학교라 지칭하거나, 각종 학교를 지정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인가'를 받아서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학교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대다수의 대안교육 현장은 교육과정 상 국가의 관여를 받지 않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남아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2021)은 이 같은 제도권 교육 밖 대안학교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등록'을 통해 공적인 교육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중등교육법상 몇 조항을 삽입하는 법제정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의 다양성과 국민의 교육적 선택권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된 대안학교

대안학교 관련 첫 번째 법 제정은 1998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학교 관련 법령 제76조와 제91조가 삽입된 것으로 이는 전면적인 법 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관련 법조항의 추가로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대안학교에 관한 최초의 법령을 만들면서 명칭을 **대안학교가 아닌 '특성화학**

교'로 지칭했는데 이는 대안학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기존의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 정도로 이해하고, 교육부가 먼저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지칭하였다. 1998년 3월 5개의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간디, 성지, 양업, 원경, 한빛, 화랑)가 생겨났고, 현재까지 26개의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공립5/사립21)가 운영 중이다.

초·중등교육법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학교인대 학교가 아니라는 각종학교, 대안학교

대안학교 관련 두 번째 법제정은 2005년 3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안학교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대 초부터 빠르게 늘어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 때문이었다.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교육 과정이었으나, 그 당시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여 초등 대안학교의 설립을 요구하거나 직접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교육부가 2003년부터 대안교육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2007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은 '대안학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기존의 '학교교육'이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도 차별성을 갖도록 하고, 또한 '각종학교'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사한 학교'이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학교로 정의하고,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분류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안교육 법제화 운동의 결실-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학교 관련 세 번째 법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로 2021년 1월 제정되었고, 1년간 시행령을 준비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제정은 법의 밖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공적인 교육의 영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해당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무교육의 대상자)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해졌고,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던 대안교육기관들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안교육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가 국가나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국민 즉 학생과 학부모도 한 주체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안교육의 정의(제2조의1)와 및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제2조의2), 취학의무 유예(제10조)를 통해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인가'가 아니라 '등록'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안학교를 '특성화학교'나 '각종학교'의 틀로 운영하도록 했던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학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대안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다. 국가가 공교육의 영역에서 학생 한 명당 교육예산을 책정하여 지출하고 이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처럼 공교육 밖의 대안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마땅하다. 학생 개인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하든 대안학교에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든 대안학교가 공적 영역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의 다양성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력인정(학점인정)의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1.1.3. 제정)

제1조(목적) 이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제6조(결격사유)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제15조(수업료 등)

제16조(회계운용)

제17조(교원의 자격)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9조(당연 퇴직)

제20조(시정명령)

제21조(청문)

제22조(명칭)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과태료)

4 기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과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초·중등교육법상의 제·개정은 아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대한학교의 구성원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공식화하고 예산(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한학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은 2011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이 처음이며,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2012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4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비인가 대한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나 건강진단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급식비 외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인건비나 사업비(교육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법의 제정 이유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한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대안교육 운동에 이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안교육 법제화 운동은 20여년이 지난 2021년에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작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시행령)을 통해 그동안 엄연히 존재하지만 교육의 기본법인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학

교 밖 청소년과 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법의 밖에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예산과 교육과정 등의 모든 부담을 떠안은 학부모와 대안교육인들의 부담을 국가와 함께 나누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공존하며 학생과 부모의 교육적 선택권이 존중받는 시기가 좀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박상진(2021). <장신논단, vol.53, no.1>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이종철(2021). 대안교육기관법 통과 의의와 전망. 교육대안연구소(<https://iake.or.kr>)

이종태 외(2019).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교육부)

차영희(2020). 대안교육기관법률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아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교육부(<https://www.moe.go.kr>)

요즘이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의견

교육팀 황현영



탄생에서 소멸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탄생하고 소멸한다. 기존의 쓰임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나름 각자 존재의 이유를 담고 필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복돼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 법 또한 마찬가지.

법령은 적절한 입법절차를 통해 제정되고, 개정되며 시행된다. 시행하고 있던 법령을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어떤 법률을 발전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테두리가 만들어지기도,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안교육기관 현장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학부모, 이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집중할 만한 법령이 2022년, 탄생할 앞두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9일(수), 제382회 국회에서 투표의원 242인 중 212인의 찬성, 9인의 반대, 21인의 기권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이 의결되었다(2021. 01. 12. 제정/2022. 01. 13. 시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공교육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위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 대안교육기관법 제정과 시행은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적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끝이 아닌 시작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끝은 아니다. 법이 제 쓰임에 맞게 방향을 설정해야하는 일이 남아 있다. 법령이 만들어지고 1년간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일 말이다.

지난 9월 교육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하였고,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몇 가지 화두가 된 사항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다.

쟁점①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관한 해석의 모호함

Q1. 법령에서 말하는 '지자체'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갑설	교육청	을설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	-----	----	--------------

Q2. '각종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는가?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에서 **각종학교(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의 해석이 필요하다.

-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에 포함할 경우 교육청 소관으로 해석된다.
-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에 미포함 할 경우 광역지자체의 소관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 제4조에 의해, 이 법은 특별법이므로 각종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종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된다면 애초에 「초·중등교육법」 각종학교의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법」은 「초·중등교육법」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법령에서 말하는 지자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령에서 말하는 지자체가 '교육청'을 의미할 경우, 대안교육기관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해석되며 이는 교육청의 사무이다. 서울시 정책의 대전제에 문제가 되는 사안인 것이다.

'광역지자체'를 의미할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라 교육복지 사무로 해석되며 여전히 서울시 사업은 지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장' 모두를 의미할 경우는 어떨까? 교육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간의 협력이 중요해 질 것이다.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서울시와 같이 지원정책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령에서 말하는 '지자체'의 해석을 두고 교육부에서는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이며 현장들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갑설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주관한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이 상호 상충하지 않고 건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정책을 잘 마련하고 운영하길 바란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대안교육기관법」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이 상충하지 않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운영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의 공적 영역 진입과 운영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 서울시 사이의 긴밀한 협치가 꼭 필요하다.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교육의 청소년과 동등하게 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루 빨리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또 「대안교육기관법」이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대안교육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쟁점② 대안교육기관은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나?

언저리잡지 의견

① 공교육은 매년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의 학습 안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등록'에 따라 관리, 감독은 받지만 이를 뒷받침할 운영 예산이 없는 것이다. 예산 지원이 없는 등록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②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학교밖청소년조례」를 통해 대안학교를 지원해오던 것을 확대하여 2020년부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31개의 대안학교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교사 인건비, 학생 급식비, 기관 임대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 왔으나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 이후 오히려 전년 대비 15% 삭감된 [2022년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대안교육기관법에 예산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축소는 대안교육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각 대안교육기관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③ 서울시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한 기관은 지원하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하면 지자체(쟁점①의 갑설에 따라 '교육청'으로 해석하고 있음)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 대안교육기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등록을 하자니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서울시의 신고제에 따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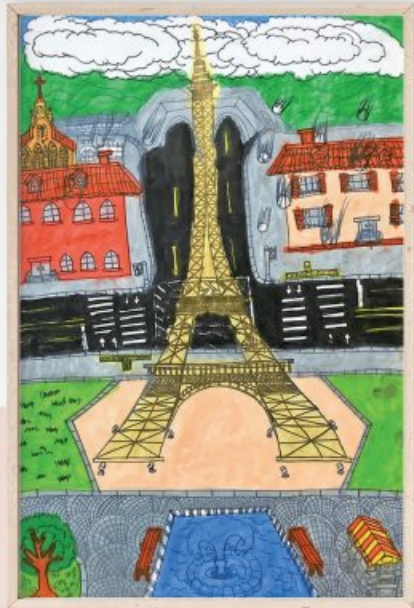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교육부(<https://www.moe.go.kr>)

이종철(2021). 대안교육기관법 통과 의의와 전망. 교육대안연구소

유은영(202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관련 현안 공유」 자료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202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안」에 대한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입장문

이룸스쿨 민준수



평화로운 마을에 갑작스런 날벼락

평화로운 민준수 나라에 면담과
연탄봉사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을 표현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처음에는 면담이 부담스러웠고
나중에는 그래도 적응하려 노력했다.
이룸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연탄봉사였고, 거의 노동 수준이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봉사에 참여했고,
연탄이 아령이랑 무게도 비슷해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어색해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다짐

첫 만남의 싸늘함,
동시에 자주 보는 풍경의 익숙함의 역설

처음 만난 사람을 볼 때 낯설고 수줍다.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나중에는 낯설어하는 감정이 사라진다.
학교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고 즐겁게 놀다보니
점점 더 학교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기분전환

나의 힐링

학교에 다니면서 외부체험활동을
할 때 가장 즐거웠다.
독섬한강공원에 갔을 때 자전거를 타면서
기분이 전환됐고, 점심에는 BHC치킨집에서
맛있는 치킨을 먹었다.
서로 이야기하며 학교에 점점
적응해 나가고 좋았다.

만남이 있는 삶



나는 ~로 배운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꿈에학교 김슬기)
나에게 꿈에학교는 자신감이다 (꿈에학교 심동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른다 (이룸스쿨 정희람)
미디어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이룸스쿨 정윤소)
우리는 알바로 배운다!! (꿈에학교 이승우, 임형진)
나는 관심과 경험으로 배운다 (꿈에학교 김민혁)

졸업생 만남 나, 대안학교 졸업생이다!

학생에게 배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꿈에학교를 만난 후 나의 변화

꿈에학교 김슬기

꿈에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받게 되거나,
자신감을 얻게 되거나, 소중한 우정을 만들게 되는 등...
이런 다양한 변화들 중 좀 더 특별한 변화를
경험한 학생을 만나보았다.
내가 좋은 사람이란 것,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학교에서 알게 된 2학년 김슬기 학생이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이다.



꿈에학교를 오기 전에는 어떤 배움을 했어? 배움이라는 건 거의 안 했어요. 배우려는 의지나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음... 좋았던 배움의 경험도 기억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중학교 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부터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저를 싫어하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은 저한테 졸업하고 다시 학교는 찾아오지 말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다 수업도 더 이상은 못 따라가겠고, 저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꿈에학교에 오게 된 거야? 중학생 때하고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해보자 맘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전산회계든 어떤 과목이든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0'에서 시작한다 해도 조금씩은 공부를 했었고, 하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수업도 더 이상 못 따라가겠고, 자주 결석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더 이상은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아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자퇴할까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퇴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꿈에학교를 왔어요.

꿈에학교 첫인상은 어땠어? 음... 뭐랄까... 학교 같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학교의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약간 상담실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여기선 잘 해봐야겠다. 열심히 해보자. 학교는 잘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공부도 생각 안했어요. 그저 마음만이라도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꿈에학교에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네! 예전에는 고통스러웠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해요. 저에게 행복이란 웃을 수 있는 것, 안정되어 있는 것!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 혹시 꿈에학교에서 제일 보람찼던 순간도 있을까? 음... 시험을 봤을 때! 왜냐면 제가 원래는 시험을 볼 때 그냥 다 찍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수업시간에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니깐 시험에서 아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차고 엄청 뿌듯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겼고,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뭘 할 생각조차 안 했는데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한 걸 행동하는 '한다'의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슬기가 예전하고 달라진 건 어떤 차이 때문일까? 예전에는 뭘 하려고 해도, 뭘 배우고 싶어도 항상 이미 늦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근데 꿈에학교에서는 제가 먼저 못하겠다고 말해도 선생님들이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주셔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가장 특별하고 가장 큰 배움은
제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

와... 이걸 좀 감동이다. 나도 이거 공감해. 정말로. 그럼 앞으로 슬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슬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떤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다.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랄까. 꿈에학교에 와서 마음이 편해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이 되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슬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계속 응원하고 격려해줄게!

나에게 꿈에학교는 ‘자신감’이다!

꿈에학교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 나

꿈에학교 심동진

2021년 올해도 다양한 이유, 목표, 그리고 의지를 품고 꿈에학교의 문을 두드린 학생들이 있다. 저마다의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2021년의 꿈에학교에서 정말 소중한 한 가지를 얻었다는 학생을 만나보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필자 개인적으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학생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바로 꿈에학교 2학년 심동진 학생이다.



꿈에학교를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처음에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꿈에학교를 오려고 마음먹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었어요.

그렇구나. 지금은 동진이의 바람대로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어? 처음에 꿈에학교 왔을 때는 정말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으로만 왔었는데 역시 여기도 학교니까, 여기서 진행하는 수업도 들으면서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 시험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무언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좋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친구들을 사귀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었던 거네? 배움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것들 말이야. 네, 맞아요. 기대한 것이 상의 점수를 받으니까 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칭찬도 해주시니까 더 기분이 좋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왔던 것이 상으로 여기에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도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경험이 꿈에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기뻐던 순간 중 하나인 걸까? 그 경험도 기뻐지만,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꿈에학교에 오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꿈에학교를 통해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이 자신감이구나? 맞아요. 아직은 제가 밖에서는 자신감이 높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꿈에학교 밖으로 나가서도 이런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에서도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운동을 시작으로 여러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동진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자신감을 얻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칭찬과 격려가 가장 크고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잘한 건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주시려는 말씀들이 다 저한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말해주니 오히려 우리가 더 고맙고 뿌듯하네. 그러면 동진이의 앞으로의 계획,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말해줄 수 있을까?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고, 하고픈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꿈에학교에서의 1년도 잘 마무리 짓고 싶어요.

“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동진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다. 꿈에학교에 들어오고 그 과정들을 나름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동진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힘이 느껴졌다. 2021년의 꿈에학교에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커진 동진이의 존재감, 자리, 그리고 자신감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동진이의 바람대로 넓은 세상에 뻗어나가길 응원하고 싶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른다

이룸스쿨 정희람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안 만나고는 살 수가 없다.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부터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잘’ 지내는 건 더더욱 어려워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룸스쿨의 정희람 학생은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냈다.
특 밀치면 악 하고 넘어져버릴 만큼 약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희람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히키코모리의 외출

어떤 일을 계기로 기가 팍 꺾였다. 그렇게 1년을 집에서만 지냈다. 원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다보니 좀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상담을 위해 다니던 병원의 원장님이 이룸스쿨을 추천해주셨다. 인터넷에 이룸스쿨에 대한 정보도 얼마 없고, 엄마도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뭐 그냥 오게 됐다. 워낙 오랜만의 외출이라 사람들과 뭔가를 해보고 싶단 생각까지는 무리였고 그저 학교라는 곳을 다니고 있다는 소속감이 필요했다.

‘재 왜 저래?’

이룸스쿨 입학 당시에는 뭐든 꼬아서 생각했고 특히나 친구들과 지내기를 힘들어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나 다른 애들이나 전부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서 똑같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애들이랑 지내면서 어울려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회피했어요. 학교에 계속 안 나오고, 학교에서 마주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친구들을 보며 ‘재 왜 저래’만 반복했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싫은 것들도 투성이였어요. 예민했죠, 제가.” 음악 수업에서 보컬을 맡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에 밀려 피아노를 맡게 된 것도 싫었고, 프로젝트 작업 중에 생각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도 너무 싫었다. 짜증과 스트레스가 컸고, 그에 비해 희람이는 너무 약했다.

(태연하게) “하하~ 왜 그래~”

꾸준히 신경정신과에서 약 처방도 받고, 상담도 받았다. “처음에는 제가 왜 개를 이해해야 되는지 몰라서 불평만 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그 친구도 나름의 사연과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가능해졌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성향의 친구들도 조금은 이해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싫으면 싫다고 내 생각을 표현하라는 상담선생님의 말씀도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고 지금 엄청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게 도움이 돼서 점점 튼튼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학교에 꾸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누가 쿡 찔러도 ‘하하~ 왜 그래~’ 하면서 넘길 수 있게 된 거죠.”

변화

정말 시간이 약인 걸까. 잠수를 탔던 2019년 1학기 발표회 때와는 다르게 2학기부터는 꾸준히 출석했고, 그해 말 드림발표회에서 포텐을 터뜨렸다. 리플렛이며 포스터며 디자인이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 희람이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 그 흐름을 타 2020년 1학기에는 발표회 사회자로도 활약했다. 어딘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두고두고 이 순간들이 이룸에서 가장 기뻐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나가서 돈도 벌었다. 하루 이용객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카페 스타*스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음료를 제조하는 일을 무려 5개월이나 해냈다. “다들 제가 스* 알바를 한다니까 일주일 만에 그만둘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룸에서 지내며 느끼고 배웠던 게 있어서 스*에서도 잘 적응해서 어울리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더욱 성장했어요. 진상손님이 와도 금방 관찰아질 수 있는 걸 보면 이제는 어디 가서든 적응도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회피 아닌 씬

사회성을 기르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1초의 고민도 없이 “이룸스쿨을 다니세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니까요.”라고 대답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룸에서 채울 수 있는 사회성 게이지를 가득 채운 희람이는 이제 배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대학으로 떠난다. 또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분명 그 속에 스트레스도 있을 터. “이제는 예전처럼 회피가 아니라 씬을 할 거예요. 휴학이든 뭐든 혼자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인드컨트롤부터 하는 거죠. 시간을 두고 지내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나쁜 감정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꼭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름의 노하우를 술술 말하는 희람이에게서 여유가 느껴졌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가 참 단단하고 튼튼하게 들렸다. 지금의 이 단단함을 잃지 않고,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자리 잡을 희람이를 응원한다!

미디어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이룸스쿨 정윤소

이번 학기를 끝으로 윤소는 이룸을 졸업한다. 스스로의 성장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영화 속 캐릭터와 대사들을 거대한 나무판자에 그려내는 졸업프로젝트를 한창 작업 중인데, 평소 대중적인 작품부터 마이너한 작품까지 가리지 않고 본 덕에 빈틈없이 채워지는 윤소의 작품을 보면 감탄에 감탄을 쏟아내게 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영화 등의 미디어들을 보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고 있다고 말하는 윤소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행복한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빠져 살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



처음은 스펀지밥!

유치원 때 예방접종을 맞는 날 너무紧张하고 무서워하는데 나이스 한 직원이 스펀지밥을 틀어주셔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때 쯤 다양한 나라들의 다양한 어린이용 미디어(만화영화, 영화 등)를 보면서 관심이 생겼고, 계속 즐겨보게 됐어요! 어린이용 카툰에는 주옥같은 대사들이 많아요. 사실 어른들이 보는 영화든 어린이용이든 교훈은 비슷비슷한데 영화에서는 메시지를 은근슬쩍 스토리에 풀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못 알아먹으니 교훈을 대사로 직접 말해주는 거죠. '가끔 인생은 어두운 터널과도 같아(아바타 - 아왕의 전설 中)' 처럼요.

명언이 많은 영화 '라따뚜이'

라따뚜이에 '우리 비평가들이 알아야 될 쓰라린 진실은 우리가 비평하고 있는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이 우리 비평가들의 비평보다 훨씬 의미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대사가 저한테는 제일 맘에 와 닿았어요. 설명하자면, 제가 '빨간색은 진짜 별로인 색이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비평 자체보다 빨간색 그 자체가 훨씬 가치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이 대사를 알게 된 후로 너무 제 머릿속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리 내가 비평을 해봤자 그 비평보다 그 대상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는 없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라는 명대사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꿈에랑 이룸 학생들에게도 라따뚜이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맘에 드는 영화 '아바타 - 아왕의 전설', 그리고 그 속의 '아줄라'

'아바타 - 아왕의 전설'이라는 유명한 미국 만화영화에 '아줄라'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되게 못돼먹은 캐릭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같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애라고 치부되고, 어머니한테서도 차별을 받았는데 마지막쯤에 아줄라가 멘탈이 터지고 엄마의 환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엄마의 환각이 '아니야, 나는 널 사랑했어.'라고 말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보고 처음으로 카툰을 보다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나쁘다고 욕을 먹는 사람들도 사실은 엄마의 사랑을 원했던 아기 같은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줄라가 마땅한 벌을 받아서 이 만화영화가 마음에 들어요. 범죄자에게 서사가 있든 없든 범죄는 범죄니까 처벌을 받아야하니까요. 아,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소수자의

시각을 잘 표현하면서도 억지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독재주의와 성차별 등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개연성 있게 나와 있어서 그 덕분에 객관성을 기르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작품 '어드벤처 타임'

중학생 때 제일 많이 봤던 카툰인데, 여기서 슬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순간에 모든 게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것, 어떤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 도 항상 끝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아무리 나빠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몰랐던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도요. 아까도 말했듯 범죄자에게 서사를 만들어 미화시키는 건 안 되고,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뒷이야기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흑과 백, 두 갈래로 모든 것을 가를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런 교훈들을 생활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의 굴레에 빠져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생각의 굴레에 빠져버리는 게 흔히 거론되는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던 카툰 대부분에서 '쓸 데 없는 생각을 안 하는 것', '오바하지 말라!'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제 머릿속에 빠져서 생각 하나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점점 주관적이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굳어지고, 결국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에 눈점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되거나 너무 오바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지 누군가가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해요. 물론 이것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잘 조절하고 활용한다면 제가 원하는 직업군에서는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픽디자인쪽으로 생각하면 되게 다양한 사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고도 알아야하고, 철학적인 생각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일은 미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 카툰이요. 아직 저만의 내용을 만들어낸 건 없지만 제가 감명 깊게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더 좋게 만들어내고 싶어요. 더 넓은 관점과 다양한 사례로요. 2년 전쯤 인상 깊게 본 작품에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랑은 반대로 자기가 너무 못나서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만들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로 담아서 만들고 싶어요.

「내 배움, 네 배움」 우리는 알바로 배운다!!

꿈에학교 3학년 이승우, 임형진이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재천T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형진 3학년 임형진입니다.

승우 19살 곧 성인이 되는 이승우입니다.

Q1. 두 분 다 알바를 하면서 배우고 있죠? 어떤 알바를 하고 있나요?

승우 가락동에서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영웅배송스파이더'입니다.

형진 저는 한남동에 있는 와인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라호메뜨 한남점'입니다.

재T 일주일에 며칠 일하고 있나요?

승우 주 6일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재T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승우 고2때였나? 1월 18일에 처음 시작했어요. 음식점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알바를 찾던 중에, 마침 면허를 따기도 했고 오토바이도 타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서 친구추천으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형진 저도 주 6일 일하고 있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고1 때 아는 형이 일하는 곳에 놀러갔다가 사장님 추천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Q2.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기대가 있었나요?

승우 안전운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

재T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가 있나요?

승우 언제 어디서든 돈의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진 저도 같은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돈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Q3. 이 배움을 하면서 언제 가장 기쁜가요?

승우 월급 들어올 때?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것, 비싼 것도 제 돈으로 살 수 있을 때가 기쁠 겁니다.

재T 지금까지 가장 비싼 걸 샀던 것은 무엇인가요?

승우 190만원? 오토바이요.

형진 저도 월급 들어올 때요. 가장 많은 시간을 일했던 달에 월급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월급이 딱 들어왔을 때 정말 기쁠 겁니다.

재T 가장 많은 월급이 통장에 찍혔을 때 얼마였는지 혹시 말해 줄 수 있나요?

승우 방학 때는 한 달에 500만원까지도 번 적이 있습니다.

형진 저는 최대 230만원 정도까지 벌었습니다.

재T 방학 때 배달로 500만원 이상을 벌려면 대체 몇 집을 배달해야 하는 걸까요?

승우 대략,,, 1,600곳 정도?

Q4. 반대로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승우 눈 올 때, 비 올 때, 기상악화로 배달 일하기 어려울 때요. 실시간 워터파크행입니다.

형진 저는 와인 종류와 메뉴 등에 대해 자세히 외워야 할 때가 힘들었습니다. 알콜도수가 얼마인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맛은 드라이한지 달달한지 등 자세히 외워야 할 때 힘들었습니다.

Q5. 이 배움을 통해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승우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진 저도 소비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재천 이 배움을 통해 경제관념이 달라졌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한 달에 두 분 다 100만 원 이상 쓰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많은 지출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승우 저는 식비요.

형진 저는 택시비! 알바가 늦게 끝나서 항상 택시 타고 집에 갑니다.

Q6. 이 배움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승우 배달 아르바이트는 내가 오토바이를 탄만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T 내가 노력한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군요.

형진 저는 청소년 나이에 술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건데, 사장님이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제가 알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청소년기에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했던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T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서 특별함을 느꼈다고 생각하는군요.

Q7.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인가요?

형진 아니요. 전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12월 말 정도까지만요.

승우 내년 초까지만 하고 지금 하는 일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재T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돈을 더 적게 버는 일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승우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우선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Q8. 이 배움을 추천하십니까?

승우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T 그 이유는요?

승우 물론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T 안전의 이유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형진 저는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것을 비추천해요.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등은 홀, 서빙, 주방, 캐서 등 일이 분담되어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그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그 많은 걸 다 외우고 있어야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T 그러나 그 경험이 이후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니까 몸이 잘 따라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Q9.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볼 다른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승우 그냥 어린 나이에 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학생 때는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 생활을 즐기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후에 대학도 가고 해서 그 생활을 잘 즐겼으면 좋겠다!

형진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승우 술, 담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재T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관심과 경험으로 배운다

꿈에학교 김민혁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다가도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면 한국인보다
더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인이지 않을까
헛갈리게 만드는 민혁이는 벌써 한국생활 12년차다.
7살에 한국에 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 덕분에 민혁이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해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관심과 경험. 어떤 계기로 배움을 시작 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언어, 문화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외국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들을 만나 배운다 해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직접 경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특별한 분야에 관심을 갖진 않았어요. 제 인생, 가족, 친구 이 정도가 제 관심분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민이 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저한테 어려움이 생기면서 소수 시민단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빈 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을 알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해결할 수 없던 현실을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나부터 조금이라도 사회에 목소리를 내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권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사람책 활동을 하면서 내 이야기뿐 아니라 난민들의 상황,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네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작은 관심이라도 무언가를 바꿀 시발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 본다면, 처음 난민 신청을 했었을 때에 3년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엔 1명의 선생님만 관심 가져주셨던 제 문제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지고 그게 소문이 퍼지면서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무려 180명 이상의 친구들이 참여해줬어요. 우리 학교, 옆 학교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도요. 저는 모르는 아이들이었는데도 저를 돕고 싶다고 참여를 하기 시작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국민청원부터 피켓 시위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변호사님도 만나고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큰 변화를 이룬거죠! 솔직히 저 혼자 재신청을 했다면 문혔을 가능성이 컸어요. 2주라는 짧은 시간 밖에 없었고, 이슈화가 된 것도 아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해낸 거였어요.

관심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기뻐했다면 기쁘고 미안하다면 미안한 상황이었는데, 원본으로 학교 선생께 드려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걸 깜빡했었던 적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늦게까지 계신다고 하셔서 서류를 제출하러 오후 늦게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5~6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컵라면을 먹으며 저를 위한 시위 피켓을 만들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바쁜 친구들이었는데 저를 위해 그렇게 준비해 준다는 사실에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게 진짜 기쁘기도 했고요. 친구들은 ‘그냥 친구니까’라면서 묵묵히 준비해줬어요. 전부. 그 말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덧붙여서 ‘그냥 친구고, 진짜 만약 돌아가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된다면 살기 싫어질 것 같아. 그래서 도와줬어.’ 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도 학교 끝나자마자 PC방에서만 있었을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사람책, 인권 운동들을 하면서 PC방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걸 엄청 배운 거죠. 사회에 대한 관심,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도요. 그리고 매년 활동을 할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들도 풀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꾸준히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이런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려고 해요. 대학교에서 더욱 전문적으로 배우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깊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현재 상태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감이나 뒤에서 함께 해주는 건 가능해도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은 아직 지식이 없으니 도와줄 수 없잖아요. 많이 배워서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도와주었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애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 아마 너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나도 없었을 거야. 사실 살아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를 위해 꼭 노력해볼게.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작든 크든 너희가 나에게 준 그 도움들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아갈게. 고마워. 진심으로. 너희가 나를 살렸다.

누구보다도 소수자를 위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혁이가 여럿한 한명의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받았던 관심과 경험을 전하고,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길 응원한다.

나, 대안학교 졸업생이다!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아직도 터무니없는 대답들이 들려오곤 한다.

‘거기 다니면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대안학교 졸업하면 답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들.

우리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배움을 누리고 있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는데 말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 이룸&꿈에 졸업생들이

이곳에서 어떤 배움을 했는지,

졸업 후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7명의 졸업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름 덕분에 ‘나다운 나’가 됐어요

강은지 2015년 이룸스쿨 졸업



이름은 어떻게 왔나

오랫동안 쉼터에서 지내다 고1 때부터는 혼자 독립했었어요. 생계유지 때문에 정규학교를 못 다니고 알바하고 놀고 지내다 성인이 됐죠. 그러다 2014년인가? 아는 선생님 소개로 이룸스쿨에 오게 됐어요. 오자마자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한방에 뚫어요.

이룸스쿨은 어땠는지?

성인 나이에 와서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려니 나이 때문에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적응하고 친구 같은 선생님들 덕분에 잘 적응했어요. 저는 가정에서 보호받은 게 너무 짧아서 이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항상 가족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름에 오기 전엔 살아남기 위해 밥벌이만 생각하고, 제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면 좋을지, 뭐가 부족하니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생각을 실천도 할 수 있게,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고,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해주셨어요. 아마 일반 학교를 다녔다면 나를 배제하고 사회나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맞춰 사는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이름 덕분에 주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졸업 후엔 어떻게 지냈나

주거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복지를 받는 대상자, 클라이언트였던 제가 실무자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서 일단 자원봉사를 했어요. 교육복지센터랑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한부모가 됐죠. 우연히 한부모 관련 행사에서 제가 발언을 할 기회가 생겼고,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팀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거문제는 내가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숙제였어서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실제로 제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냈던 일을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게 된 거라 지금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다가요~호호

졸업하고 나니 보이는 것이 있다면?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인식도 낮은 것 같아요. 대안학교 졸업했다고 하면 ‘그게 어디냐’, ‘어떻게 학교를 안 다닐 수가 있냐’ 묻기도 하고, 심지어 뭐하는 데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대안학교에서 경험한 좋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철부지가 선생님이 되다!

박현수 2017년 꿈에학교 졸업



꿈에학교 시절 현수는 어땠었나

적성에도 안 맞는 디자인과를 가서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다가 부모님 제안으로 꿈에학교를 왔는데 형식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편안한 분위기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러오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철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반향을 했어요. 핸드폰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쉬는 시간 끝나도 괜히 빠팅기고 앉아있고. 하하하 복에 겨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상한 반향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졸업 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다고 들었다

네, 어린이집 교사로 1년 좀 넘게 일하고 있어요. 애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학을 이쪽으로 갔다가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애기들이 미운 짓 하는 거나 저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셔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쁜 짓 한번 하는 걸 보면 그 힘으로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서 장점, 좋은 점,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 많이 찌들었나요 하하하

선생님이 되니 그 시절 선생님들의 마음이 공감이 가나보다

맞아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방향하지 않고 잘 컸어요. 예전에는 진짜 철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는 힘든 일도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버티고, 돈도 벌고, 아이들을 볼 만큼 철이 들었어요. 민지샘이 특히 많이 도와주셔서 대학교를 갈 생각도 했고, 그 때 계셨던 현태샘이 단호하게 말씀해주셨던 덕분에 정신도 차렸어요.

대안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직업인을 만나는 특강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해요. 꿈에학교에서 타투이스트를 학교에서 만나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을 계기로 색다른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보육교사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들, 반대로 색다른 직업들도 골고루 만나볼 수 있게 하면 직업군에 대한 배경지식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또 큰 꿈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구요. 아, 인서울이나 4년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사실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현실들을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꿈에학교는 나에게 최고의 학교!!

오윤택 2019년 꿈에학교 졸업



요즘 근황을 알려달라

단결! 상병 오윤택!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강원도 화천 7사단 칠성부대에서 군복무 중입니다!

졸업하고 나니 고등학생 때와 많이 다른가

자유로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누가 컨트롤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하는 게 많아져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보이는 것이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아요.

꿈에학교 시절을 돌아본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매일 재미있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드림발표회! 발표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힘들었던 건 아침에 등교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 고등학생 때가 제일 좋았고,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친구들과 편하게 놀러 다닐 수 있던 것도 좋았습니다.

꿈에학교 졸업 후 진로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다

꿈에학교 선생님들하고는 특히 더 친하고 가까워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진로에 관한 대화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고, 그

과정이 지금의 오윤택을 만든 토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학과 20학번으로 입학했고, 졸업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쪽 좋아했던 분야인 자동차에 대한 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군에서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서 일과 외 시간에 자동차 관련 영상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너무 좋아해서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판매 아르바이트도 잠깐 했었는데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 언젠간 자동차 판매일도 해보고 싶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학교가 지금의 오윤택을 만들었다니. 감격이다

저에게 꿈에학교란 최고의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에학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치지 말고 무사히 잘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가 제일 중요한 시기일 텐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부질없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꿈에학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꼭 찾아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덕분에 안전하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류현수 2020년 이름스쿨 졸업

졸업 후 대학교에서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

네, 도시조경학부 도시기획전공생으로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동아리에 들어가서 임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원래도 활동하던 비영리단체 ‘철길위의 방랑자들’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첫 학기 전공수업에서 전문용어들을 들을 땐 불안하고 떨렸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에서 배운 것들 덕분에 더 잘 적응했다던데

중요한 걸 정말 많이 배웠죠. 우선 개인프로젝트 하면서 보고 써 쓰느라 참 고생했었는데 그 덕분에 대학교에서 논문을 아주 잘 썼고 실제로 칭찬도 들었어요. 하하 그리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었죠. 규칙적인 생활습관도 잡을 수 있었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안정되고 편안해졌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도 많이 쌓았던 덕분이에요. 특히나 소통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안전하게 소통할 줄 알게 됐어요. 상대를 비하하지 않고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주어를 ‘나’로 잡고 말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이래서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와 같이 나의 생각-이유-원하는 바를 차근차근 말하게 됐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적응되다보니 서로 오해도 없어지고 안전한 장치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서로 보완하고 공감할 수 있고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게 촉진하는 말을 잘 하게 됐어요.

배운 것들을 잘 써먹고 있다니 참 좋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름을 다니면서 대학 진학을 할지, 따로 공부를 할지, 취업을 할지 내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름에서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진로 고민을 하고 시도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진로를 이루려면 대학을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학했던 것 처럼요. 요즘은 복수전공, 부전공을 어떤 걸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느낌, 그리고 추억

이준석, 전승빈 2019년 이름스쿨 졸업

졸업하고 이름 생각을 많이 한다고

준석 네,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이름을 다닐 때에는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내고 뭔가를 하는 게 참신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요.

승빈 저도 어쩌면 졸업 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하지 않으니 지루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졸업 후 잘 지내고 있지 않은가

승빈 네, 이름스쿨 다니면서 준비했던 영국 유학이 좋은 결과가 나서 출국할 준비를 하면서 지냈어요(승빈이는 노리치예술대학교 순수미술전공 입학 예정이다).

준석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하고, 성당사람들하고도 간간히 만나서 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도 많이 없고 편하게 못 놀긴 하지만요.

졸업을 해보니 이름스쿨의 어떤 점이 특히 도움이 되었나?

준석 10시부터 3시까지 규칙적으로 매일 나왔던 게 지금 대학 생활을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맨날 밤낮이 바뀌면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도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지내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사람답게 사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승빈 저도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아주 길었는데, 학교를 매일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재밌고 보람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게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다. 혹시 학교를 자퇴하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것을 추천하는가

승빈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뒷감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엄청 줄어드니까 모임을 많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준석 전 그만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단지 자유를 찾아 계획 없이 그만 두면 힘들어요. 계획이 있거나 정말 어쩔 수 없다면야 괜찮지만. 아니면 이름스쿨을 오면 돼요. 할 거 없거나 심심하거나 언제 어떤 때나 이름으로 오세요!

승빈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애기가 어른이 되어 노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진우 2016년 이룸스쿨 졸업

취직을 하고 명함을 들고 왔다고

네! 첫 월급을 받고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서 선물을 하고 있어요. 이룸스쿨 다니던 때는 애기였는데 이렇게 잘 커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도움에 보답을 하는 거죠. 하하하

애기가 어떻게 대학 진학을 생각했었는지 궁금하다

일단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습득하는 게 느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방과후에 남아서 나머지공부를 했었어요. 중학교 입학할 앞두고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대안학교를 가게 됐고, 이룸스쿨은 두 번째로 다녔던 대안학교였어요. 그런데 19살이 되니 부모님이 대학교를 가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힘들었어요. 저는 더 놀고 싶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게 너무 낯설고 불안해서 싫었거든요. 또 제가 어떤 분야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맞을 분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운데 주변에선 자꾸 대학을 가야한다 하니까 힘들어서 드림센터 상담팀에 가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가 몰래 상담선생님한테 대입 면접 준비를 은근슬쩍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엄청 자연스럽게 면접 1번 질문인 '동기'를 정리하는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다보니 대학을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평소 봉사활동을 좋아해서 많이 해왔는데 특히 많이 접하고 알고 있던 장애인 복지를 전문으로 배우고 싶어서 '재활자립학과'로 진학했어요.



어떤 봉사들을 했었나

드림센터에서 청운위(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센터 모니터링을 해서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역할이라 안내를 받고 뭔가 멋있어보이기도 하고 하고 싶단 생각이 막 들었어요. 실제로 센터에 날카로운 게 있으면 제게해달라고 제안도 하고, 놀이터에 있는 에어컨도 원래 없던 걸 저희 기수가 제안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2기부터 5기까지 활동하다 2019년 하반기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로도 활동했어요. 또 성문화동아리나 이것저것 들어오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성장했나보다

맞아요. 제가 낮가림이 진짜 심한데 이렇게 많이 활동하다보니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게 가장 성장한 거라 생각해요. 이룸스쿨 처음 왔을 때에도 낯설어서 맨날 나눔실에서 책만 보다가 그나마 친했던 선생님이 퇴사하시면서는 패닉에 빠져서 맨날 카페에서 똑같은 아이스크림만 먹고 아무랑도 얘기 안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성장해서 새롭게 취업교육도 받고 취업알선도 받아서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볼 용기도 얻었고, 취업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돈 벌고 멋지게 일을 하면서도 이 센터가 망할 때까지 계속 자주 올게요!!

학생에게 배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치가 낮다고 해서 학생들의 생각이나 말이 마냥 의미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의 고민을 쉽게 해결할 신통방통한 방법을 그들이 제시해 줄지도 모르죠! 그래서 꿈에, 이룸스쿨을 오시는 선생님들의 고민을 모아 학생들에게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가벼운 고민부터 심오한 인생 고민까지, 학생들이 어떤 신통방통한 답변들을 내어줄지 한번 무엇이든 물어봐 봅시다.



요즘 배달음식을 자주 먹어요. 어떻게 하면 배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산간오지로 이사 간다면 배달음식을 끊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들을 방 안에 쌓아보세요. 현타가 옵니다.

일단 앱을 지우세요!! ㅋㅋ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운동한 게 아까워서라도 안 먹게 돼요.

요리하는 기쁨을 알아보세요. 그럼 배달을 끊게 될 거예요!

건강 때문에 고민이세요? 그렇담 건강검진을 해보세요!

배달하는 사람이 전 남친이면 안 시켜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배달음식을 안 먹어요^^



자기 전에 폰을 보다보면 한두 시간씩 늦게 자게 돼요. 어떻게 해야 아쉬움? 무료함?을 해결하고 잠에 들 수 있을까요?ㅎ

내일 계획을 생각하며 눈을 감아보세요. 폰이야 솔직히 할 시간 많잖아요!

운동을 시작합니다! 걷기 같은 거라도 하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안 들걸요?

노래를 틀고 자면 괜찮기도 해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자면 돼요! 알람은 시계로~



폰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밤에 늦게 자면 다음날 생활하는 데 힘들지 않나요? 보통 학생들은 괜찮다고 하는데...정말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만 힘드신가봐여...(?)

아뇨. 사실 안 괜찮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잖아요...ㅎ 근데 뽀폰 그만하세요 ㅋㅋ

괜찮다고 하는 건 사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괜찮다 하면 하지 말라고 잔소리가 늘어나니까...괜찮다고 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NO!!!! 간단명료한 해답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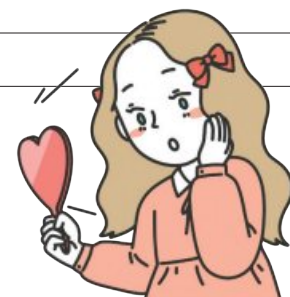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자신을 칭찬하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기죽지 않기!



 하고 싶은 일이지만 수입과 미래준비가 불투명한 직업 vs 하고 싶은 일은 아닌데 안정적인 수입 보장과 미래를 보다 명확하게 계획할 수 있는 직업

저라면 후자요. 하고 싶은 일도 직업이 되면 하기가 싫어져서...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건 취미로 즐기시다!

전자요! 돈이 자기를 버는 것이 아니라 즐기다보면 돈이 벌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고 싶은 일을 하다보면 나한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거라 생각했던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둘 다 해보세요!

후자!! 하고 싶은 일도 돈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40살에 아이들이 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을 거니까요. 저라면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걸 결정할 것 같아요.

 도전의식이 없어지고 있어요...어떻게 하면 좋죠?

가끔은 도전하지 않고 편히 쉬는 건 어떨까요? 폭~~~취고 충전하다보면 언젠가 다시 도전의식이 생길 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굳이 도전의식이 있어야 할까요?ㅋㅋ

일단 작은 것부터 하나 해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산에 가보세요. 정상에 올라 경치를 보는 기쁨을 알게 되면 도전의식이 생기거든요!!

목표를 작게 잡고 이뤄내는 기쁨을 느끼시길^^

일단 무언가를 해보는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면 현실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주세요. 비싼 장비를 사두면 안 칠 수 없게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보상을 위해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소중한 친구와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

연락을 자주 하세요! 자주 연락하면 유지가 돼요.

근데 너무 붙어있어도 안 돼요. 질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너무 자주는 말고 가끔 연락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기에 소중함을 느낄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해주세요~

전화를 잘 받으세요.

서로 간의 선을 지키면 돼요.

 돈이 없는데 하고 싶은 건 많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일단 꼭 참고 돈을 벌시다.

욕심을 줄여보세요.

돈은 평생 없어요. 돈 없어도 재밌는 걸 찾아서 하고 행복하기

중고물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보세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버세요. 능력을 키워라! 사람은 자기 능력껏 사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는 뭔가요?

저도 학생이지만 알고 싶어요...

아이더 - 에스파가 광고해서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이다스, 나이키, 퓨마를 주로 많이 입어요.

운동화는 알렉산더 맥퀸! 그리고 저는 그때그때 끌리는 걸로 사요.....얼마 전에는 나이키를.....60만원어치를.....샀어요...

이마트 노브랜드 - 🍪 맛있음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 나, 건강을 위해 커피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은?

인생은 짧아요! 그냥 먹읍시다

구글에 '커피의 부작용'을 쳐보세요.

디카페인을 추천합니다.



먹토를 하게 되면..안 마시게 돼요ㅋ(제가 그래요..^^:)

지금까지 잘 살아계시는 걸 보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몸무게에 맞는 권장량을 드세요. 그리고 취침 6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커피 대신 사탕!

 여러분!!!!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크게 책임을 느끼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참여하면 상점 5점을 주세요! 참여를 하게 하는 뭔가를 주세요

학생들이 잘하면 돼요! 선생님들은 노력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재밌으면 듣게 돼요!

애기해도 안 할 사람은 안하고, 애기 안 해도 할 사람은 해요. 맘을 비우세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요?

학생에 따라 다른데..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국어 쌤이 그러셨어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쌤이 좋다고요!

학생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선생님이에요! 자기 멋대로 수업만 하는 것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겠다는 아이들은 이끌어주시고, 안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두는 선생님이 좋아요...

내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이에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정을 고려해주는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잘 통하는 선생님이요! 융통성이 없는 선생님 말구요

감정을 공감해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다가와 주는 선생님!

 선생님들이 짬-해 보이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선생님들 참 열심히 산다~ 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ㅎ)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짬해요...ㅠ

항상 짬합니다.

맨날이요 ㅠㅠ

애들이 잘 때.....요ㅠ



선생님들이 열정적일 때요.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포기하심이...

정상등교 하라고 잔소리 하실 때 안쓰러워요...

애들이 전화를 안 받을 때요...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요.....

잘못을 해서 회의했는데 또 반복돼서 또 회의할 때 짬해요..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을 안 들어서 밉지만...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있을 때. 자기 맘대로 미워할 수도 없는 쌤들이 짬해요.

 끈대가 되거나 걱정입니다. 혹시 교육팀에도 끈대 쌤이 있나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 어른이 끈대인가요?

나이 들면서 아는 게 많아지면 저절로 끈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너무 강요하는 게 문제지만요. 학생으로서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ㅋㅋ

끈대일까 걱정하는 게 끈대가 아니라는 증거!! 여기에 추가로 계속 노력한다면 그런 고민도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괜 찮을 겁니다!!

끈대인 선생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때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 끈대가 아닐까요?

끈대인 사람은 여기서 선생님이로 게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끈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 인생이랑 다르게 산다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 지적질 하는 사람이 끈대라고 생각해요.

끈대요? 우리 학교에 끈대 쌤이 있다고요? 없다고 생각해요!!!!!!

쌤들보다 제가 끈대인 것 같아요..ㅎ 당구 칠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끈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이해하는 방법과 마음을 아는 사람.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무 같은 사람. 한 가지만 골라야 할 때 두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닭다리를 양보해주는 사람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걸 보면 덜 성숙해보이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요. 나의 잘못을 모르거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

재미가 있는 삶

현장스케치

이룸스쿨 1학기 학습결과공유회 내일 다른 학교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꿈에학교 1학기 개별프로젝트 발표회 코로나도 막을 수 없다!

점프-업 코스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더 Jump-Up 한다!

봉사활동 우리는 깐부잖아! - 함께해서 더 즐거운 봉사활동 이야기

이룸스쿨 동아리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지!

꿈에학교 퍼실리테이션 진로교육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활동을 정한다!

언제나교육해DREAM 총결산 다시 보여DREAM

드림발표회 2020 드림발표회를 추억하며

문화생활 추천영화

게임 가로세로 낱말퍼즐

숨은그림찾기



다양하지 않으면 망하는 (?) 이야기



다른
내일 학교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룸스쿨 1학기 학습결과공유회

기획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는 세상이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우리 학교가 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제목이 이번 학습결과공유회의 제목으로 선정되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이룸 학생들의 배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얼마나 다~ 다르게 펼쳐졌는지 찾아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

온라인 전시회

<https://eroom2021.quv.kr/>





1 교사 축하공연

와! 방학이다!

발표회만 끝나면 여름방학임을 알리는 이룸 선생님들의 힘찬 노래로 문을 열었다. 쿨의 '해변의 여인'을 개사해서 '이룸의 방학'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주 신나보인다^^*

2 이견무 개인프로젝트

롤 발표

왕년에 롤 한 가닥 했던 건무는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설명했다. 롤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캐릭터 별 역할과 건무가 선호하는 캐릭터는 무엇인지, 잘하는 방법, 그리고 이견무의 롤 썰을 발표했다.

3 동아리 발표

이룸문화센터 활동결과

미제사건 소개, 문화체험, K-COOKING, 원데이 아트클래스, 만화이야기까지. 각자의 관심사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즐기며 시야를 한껏 넓혔다. 소통, 인정, 확장, 이해, 가능성, 재미, 발견을 얻었던 이룸의 동아리활동은 [재미가 있는 삶]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4 정희람 개인프로젝트

얼레벌레 유화그리기

유화 하면 정희람! 정희람 하면 유화! 한 학기 개인프로젝트로 좋아하는 인물을 유화로 그려냈다. 유화에 대한 희람이의 이야기, 작품 제작 과정, 그리고 그 화려한 결과물들을 보여주었다.

5 민준수 개인프로젝트

교회와 12천사에 대하여

뭐 하나에 꽃이면 그것만 파는 남자! 이번학기 '12천사', 'K-style', '우쿨렐레'에 꽃힌 준수는 12천사 개인프로젝트를 신라시대 옷을 잘 차려입고 발표했고, 뽀너스로 가장 좋아하는 CCM을 직접 우쿨렐레로 연주했다.

6 수업 결과 발표

우쿨렐레와 피아노

1인 1악기를 배우자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음악수업. 매주 목요일마다 복도가 덩가딩가 소리로 울려퍼졌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결과로 아름다운 'you raise me up'합주가 완성되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발표나 전시도 변해간다. 이룸스쿨 역시 그 변화의 흐름을 타 1학기 학습결과공유회 발표를 유튜브 생중계로 선보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시회도 열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눈을 맞추며 보여주는 못 했어도 제법 생생하게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다고 생각된다. 역시나 이룸답게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들이 직접 결정하고 완성해낸 학습결과공유회를 구경해보자.

1 신비로운 유화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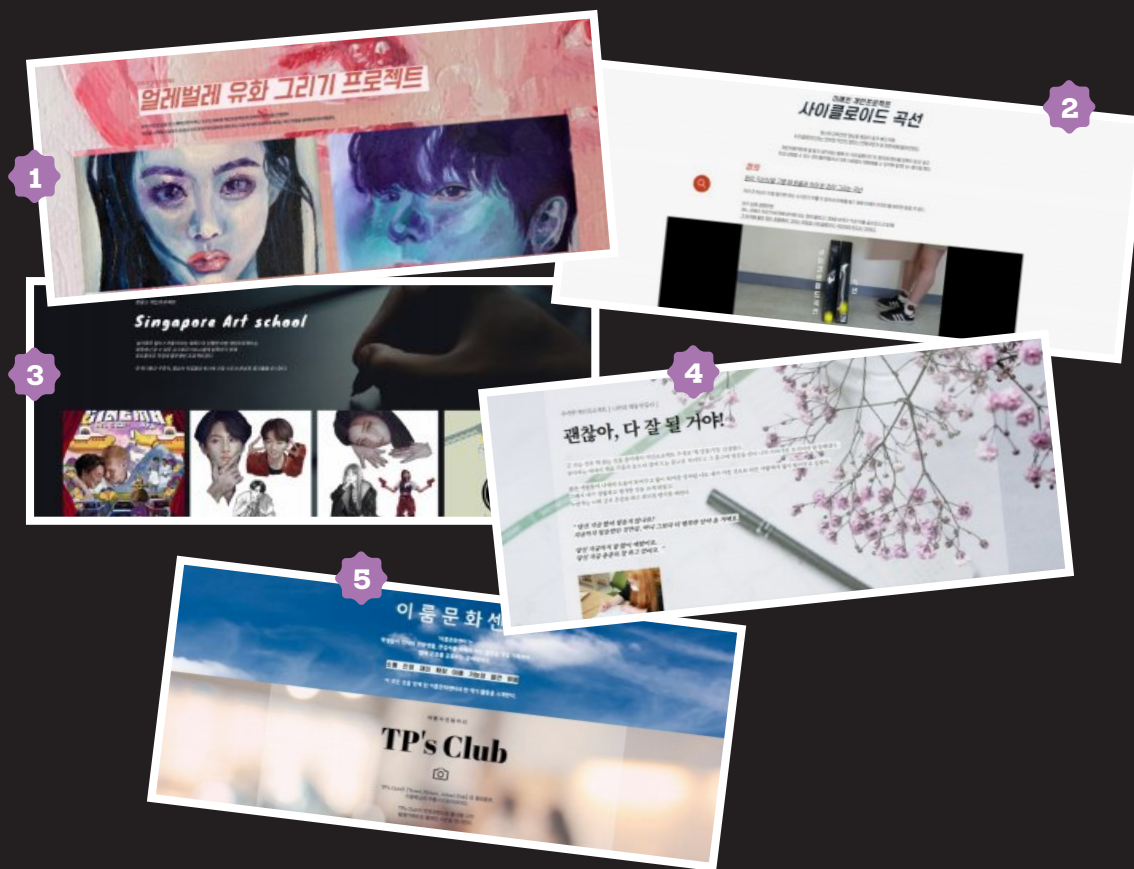
얼레벌레 유화그리기 프로젝트

발표에서는 유화에 대한 이야기, 작업 과정을 소개했다면 전시회에서는 그 작품을 크고 자세히 보여준다. 유명연예인들을 딱 보면 딱 알만하게 잘 묘사하면서도 희람이만의 색감과 그림체를 잘 녹여낸 그림들을 감상해보자.

2 무한으로 샘솟는 과학적 호기심

사이클로이드 곡선 실험

직선에서 공을 굴릴 때와 사이클로이드 곡선에서 공을 굴릴 때, 어느 공이 더 빨리 굴러갈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예빈이의 개인프로젝트 실험 결과를 온라인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3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싱가포르 알트스쿨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싱가포르 아트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작업에 몰두하는 한 학기를 보냈다. 엄청난 시간과 정성, 열정을 가득 담아 완성해낸 황금손 윤소의 포트폴리오 작품과 워크북을 전시하였다.

4 감성터치

나만의 책을 만든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적어내어 읽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는 석란이의 에세이를 소개한다.

"당신 지금 많이 힘들지 않나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5 우리들의 뜨거웠던 시간들

이룸문화센터 그리고 TP's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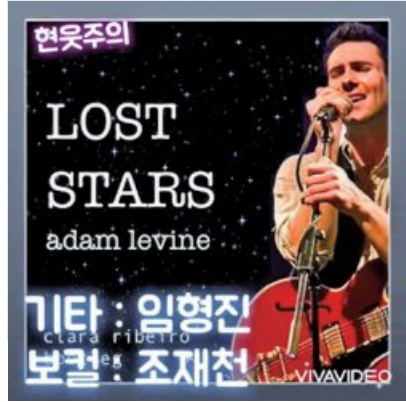
각자의 관심분야를 함께 보고 듣고 즐기며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 동아리!!! 이룸문화센터 활동 내용과 여행사진동아리 TP's Club의 사진을 전시한다.

	슈가크래프트
강○아 3학년	
평소 관심 있던 주제이자 미래 직업으로까지 생각하는 제과 분야 중 슈가크래프트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직업에 대한 조사부터 전문가 인터뷰, 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클레이아트에 도전해서 작품을 만드는 활동까지 이어간 *아는 이번 프로젝트 활동 경험을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 스스로 작품을 완성해서 뿌듯했다고 전했다.	
	

	네일 아트
황○연 2학년	
네일 아트에 관심은 있어도 실제로 해본 경험은 많지 않아 개별프로젝트 시간을 활용하여 이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재료를 찾아 구매하고, 기초부터 하나씩 자신의 손톱과 모형 손톱에 연습하며 경험을 쌓았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연이는 네일 아트가 재미는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ㅎㅎ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	
	

15명 학생 중 발표회에 참여한 친구는 총 10명! 이런저런 이유로 발표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하기에는 충분한 발표회였다. 조금은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완성했다는 성취감과 함께 2학기에는 더욱 더 멋지고 발전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2학기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다시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린다.

현장스케치	
코로나도 막을 수 없다! 꿈에학교 1학기 ‘개별프로젝트 발표회’	
올해도 꿈에학교에는 다양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다.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30명 정원의 2학년 운영을 하게 되어 1학기에는 15명의 학생들이 복적이며 꿈에학교를 채웠다. 자신만의 주제로 한 학기 동안 개별프로젝트를 하며 꿈을 위해 고민하는 긴 여정을 달렸고, 프로젝트 발표로 그 여정을 마무리 지으려던 때!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다시 등교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개별프로젝트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7월 22일, 줌 화상회의로 발표회를 진행했다.	
꿈에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 수업들이 진행된다. 일주일 중 가장 많은 시수를 자랑하는 <개별프로젝트> 수업은 학생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를 주제로 다양한 정보탐색, 경험, 활동, 인터뷰 등을 통해 W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수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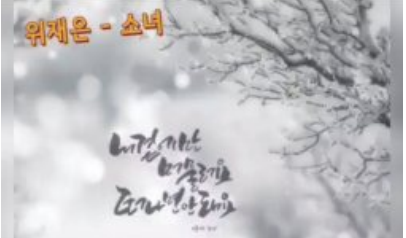
	통기타 배우기
임○진 3학년	
주제를 고민하던 중 이*우 학생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통기타를 배워서 연주하기로 했던 *진이는 친구의 예기치 못한 배신(?)으로 결국 혼자 연주를 하고 이를 녹음해 발표했다. 곡명은 Adam Levine의 'LOST STARS'. 친구를 대신하여 그의 기타 연주를 돋보이게 해준 보컬이 있었다는데.....결국..혼자... 아무튼 다시는 친구와 한 배를 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했다.	
	

	전산 회계사
김○기, 김○현 2학년	
단짝 친구 둘이 모여 전산회계 분야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조사했다. 피, 땀 흘려(?) 공부하고 전문가 인터뷰까지 진행한데다 더 나아가 자격증 시험도 접수를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 전날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시험장엔 못 가고 코로나 검사 후 집에서만 있었다는 슬픈 현실... 그래도 포기하려 했던 분야였지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다고 한다. 그 거면 충분해!!	
개별프로젝트를 마치고... 사실 전공만 배우는게 아니고 회계에 관련된 단어조차 몰라서 개별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자격증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은 거라서 애디셔널이 될지 모르겠고 한 학기 동안 공부 계획을 세우고 회계학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 같다. 공부를 하면서 회계가 마냥 어려운 것만 같고 생각보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직접 인 인터뷰를 하고나서 회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포기하지 않는 게 관건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용기와 큰 힘을 얻었고 동기부여가 됐다. 회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배우고 싶다. 우리는 어렵게도 시험에 응시해서 못 봤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요리(김밥과 떡볶이)
심○진 2학년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진이는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생각보다 떡볶이가 잘 만들어져 김밥 역시 쉬울 거라 생각했으나!! 김밥 재료 손질이 만만치 않았다. 재료를 썰고 다듬고 볶아내는 과정이 꽤나 어려웠다. 하지만 약 한 달간의 연습과 노력 끝에 마침내 본인만의 시그니처 김밥을 만들었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폭풍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제과 제빵(카스테라와 마카롱 만들기)
	

	보컬(발라드)
위○은 2학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서도 평소에 잘하고 싶었던 보컬 연습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오혁의 '소녀'를 연습했다. 이후 드림센터 녹음실에서 녹음해서 이를 공개했다. 발표회 당일 가족여행 중이라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중 발표회에 참가한 *은이는 자기 목소리를 부끄러워했지만 선글라스 뒤로 내심 뿌듯해하는 모습이 다 비친 건 안 비밀!	
	

	제과 제빵(카스테라와 마카롱 만들기)	김○준 1학년
발표에 앞서 PPT를 띄우다 '컴퓨터가 이상하다'는 말과 함께 유유히 사라진 *준이는 그렇게 발표 대신 PPT로 자신의 발표를 대신했다... 카스테라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나 머랭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마카롱은 완성도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어 다음 학기에도 제과에 도전하겠다며 나중을 기약했다.		

	유치원 교사
박○영 2학년	
요리, 메이크업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고민하다 유치원 교사를 주제로 선정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유치원 교사를 진로로 고민하던 차였다. 유치원 교사의 역할, 어떤 자격증과 조건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발표했고, 향후 유아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남은 학교생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만의 앨범 제작
김○혁 3학년	
평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던 *혁이는 수종샘과의 콜라보로 합한 미니 앨범 만들기를 진행했다. 직접 랩을 작사하고 수종샘 지인 찬스로 외부 작업실에서 녹음도 해서 앨범 제작을 완성했고, 멋지게 완성한 음악을 들려주었다. 랩 가사에 담긴 *혁이의 바람처럼 이 음악을 통해 모두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점프-업 코스 : 검정고시 대비반&대학입시 준비반 운영 수기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더 *Jump-Up* 한다!



소수지만 괜찮아

저마다의 이유로 학업 중단을 선언한 청소년!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2021년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 학생은 약 30,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0.0433333333...%의 “**작(적)고도 소중한 청소년**”들이(13명) 드림센터 점프-업 코스를 찾아 주었다.

점프-업 코스는 매년 학업 중단 청소년의 최종학력 증진을 위해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 중에 있다.

더 소수지만 괜찮아

설상가상 막상 수업을 운영하려고 하니 아직 몸에 안 익은 생활패턴 때문이었을까? 마음의 준비가 아주 살짝 조금은 부족했던 것일까?

점프-업 코스가 진행된 이래로 제일 적은 등록인원과 참가자 수를 기록하며 2021년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이 시작되었다.

하! 지! 만!
단 한명의 청소년이라도 점프-업 코스가 필요하다면,
또 그게 우리가 가야하는 길이라면 교육팀은 주저하지 않고 간다!

가끔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필요했었고, 옆 자리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자극 받아 학구열을 불태우는 날도 필요했겠지만 너무 소수의 인원이라 그런지 각자가 필요한 수업만 듣게 되고 공부하게 되니 우리 안에 큰 교류가 없었다. 그 점이 지금도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수업을 듣는 친구들. 공부하러 온 공간이지만 너무 공부만 하니 재미가 없을 법도 한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리를 지키며 노력한 친구들이 대견스럽다.

그저 담당 선생님의 실없는 농담과 잔소리로도 든든한 응원이 됐으며 담당선생님을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었다.

은혜 깊은 까치

과거를 보러가던 선비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위기 에 처한 까치를 구해 준 이야기를 아는가? 그날 밤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 아내가 남편 구렁이를 죽인 선비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자 까치가 와서 선비를 구해 주었다는 동물 보은담이다.

2021년 점프-업 코스가 그랬다.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는 청소년 수가 줄었고, 검정고시 대비반을 찾는 인원도 줄어들었다.

총 7개의 과목 수업을 준비하러 드는 품과 노력에 비해 아웃풋이 적은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에 기운이 빠지기도 했다. 아침마다 학생들의 노쇼가 걱정됐고, 학생들이 오지 않아 선생님들께서 센터에 왔다가 돌아가는 날도 많아 졌다. (실제 사업비를 적게 썼지만) 운영의 적자라고 생각 했다.

마치 구렁이에게 몸을 잡혀 움짱달짝 못하는 까치의 심정이었다.

하지만 까치에게는 과거를 보러가던 선비의 도움이 있었지 않은가? 점프-업 코스도 마찬가지다.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선비(청소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까치(담당 선생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점프-업 코스 평가 내용>

친절 / 소수정예 하드캐리 / 이해할 수 있도록 1:1 수업, 보충수업 도움이 많이 됨 / 식사, 간식을 먹으며 조금씩 친해짐 / 떡볶이 많이 사주심 / 각자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수준 별 강의도 해줌 / 현영샘의 열정 / 샘이 잘 알려줌 / 모의고사 제공 / 자유로운 분위기 / 풍부한 자원 봉사 군 /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할 사람이 생겨 좋았습니다 / 열렬한 응원을 해 주신다 / 모의고사로 마킹연습, 전체 점검이 가능했다

걱정하고 고민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이 과정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전달됐다는 것을 느꼈다. 검정고시 대비반을 마무리 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운이 쪽쪽 빠지는군. 아-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기 아쉬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선비이자 까치가 돼 보자!”

우리는 한 단계 더 Jump-Up 한다!

공교육을 벗어나기로 했던 결심,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경험. 그럼에도 ‘졸업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검정고시 대비반 과정 이후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었다. ‘너희 이제 뭐가 필요하니?’

“제가 좋아하는 무대 설치미술을 배우고 싶어요.”
“저도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탄력을 받아서인지, 때가 돼서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과정 이후에 또 다시 학업을 이어가고자 했다.

드디어, 선비에게 은혜를 갚을 날이 왔다!

점프-업 코스를 하며 대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봤다.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고, 혼자서 박람회 등을 돌아다니며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다. 또 함께 수시 입학 tip을 찾아보며 원서를 접수한 친구까지.

대학입시를 원하는 청소년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면서 막막했던 점들이 생각났다. 실제 입시현황을 잘 모르고, 종이로만 나와 있는 전형을 보며 학생에게 알려주기에 전문적인 부분이 결여된 건 아닌지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운영하고자 했다. 제대로 은혜를 갚아야지!

학교 밖 청소년 대입전형을 이해하고 지원 전략을 세웠다. 각 학교별 입시 현황을 잘 아는 전문가를 모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첨삭했다. 또 모의면접을 진행하며 실전의 감을 익혔고,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했다. 당당하게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위해 가고 있다.

당연한 것은 없어!

천명의 학생이 있으면 천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당연히 대학을 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주류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의 만연함이 싫다.

‘대학이 다가 아냐! 원하는 걸 찾아서 하면 될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원한다.

‘에이~ 너도 대학 갔잖아!’,

‘점프-업 코스도 결국 대입을 위한 과정이잖아!’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배움을 위해 한 단계 Jump-Up 한 것뿐이야!



우리는 깐부잖아!

함께해서 더 즐거운 봉사활동 이야기!

코로나 이후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탄봉사활동은 잠시 미룰 수 밖에 없어 아쉬웠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과 더욱 풍성해진! 그리고 함께 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었던 교육팀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었다.
생각보다 더운 날씨, 몇 번을 들어가도 낮선 느낌인 연탄광에서의 작업으로 우비 속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갔다. 얼굴도 거뭇한 연탄 재로 얼룩덜룩해졌지만 시원한 물 한잔 마시며 힘을 내다보니 어느덧 귀한 연탄 2,600장을 13가구에 전달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오우~ 연탄봉사 빠세네요.”, “팔이 후들거려요.”등의 말들이 들려왔다. 생

각보다 힘든 활동에 몸이 많이 피로해졌던 듯하다. 하지만 다음날 담당자의 핸드폰에는 “혹시 연말에 또 진행 예정이신가요? 진행된다면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라는 연락이 왔고, 그만큼 많은 봉사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너무도 익숙해진 지금, 마음만큼은 한껏 가까워진 시간이었길 바란다.

안전과 효과 2마리 토끼를 잡는다!!
연택트 봉사활동

대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된 고민들!
학교별로 다양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환경을 지키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룸스쿨은 서울숲에서, 꿈에학교는 탄천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

교육팀의 시그니처 봉사활동!
연탄봉사!

백신도 맞았겠다, 올해는 학생들과 함께 연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성인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된 어벤져스급 자원봉사단!!
“평소 연탄봉사를 해 보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연탄봉사는 처음이라 해보고 싶었어요.”
“친구가 함께 하자고 해서 신청 해 봤습니다.”
각자 신청한 이유도,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로 다양했지만 구릉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미 오랫동안 한 팀이었던

느낌이었다.

어르신들과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 전 사전교육, PCR검사, 백신 접종 확인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10월 14일 오후 1시 강남구 구릉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단이 모였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긴장한 표정을 한 봉사자들이 하나 둘씩 모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

도 함께한 중앙대학교 봉사동아리 로타렉트 자원봉사자들과 개인적으로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 2조로 나뉘어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전교육을 통해 마을에 대해서도, 연탄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실제로 체험한 연탄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구릉마을 곳곳을 지날 때마다 아직도 서울에, 그리고 강남에 이런 마을





우리 봉사활동을 왜 하는 것일까?

봉사활동을 하기 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사전 교육이 진행 되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켜서,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나눔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의 의미를 나눔으로써 단순 쓰레기 줍기로 끝날 수 있었던 플로깅이 특정한 시간,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환경을 지키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작은 활동이 나와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집 앞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네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등의 긍정적인 반응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우리 꿈에, 이룸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샘솟는 시간이었다.

이룸의 봉사활동

이룸은 날 좋은 어느 가을,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숲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 봉사를 위해 다른 날보다 일찍 학교에 온 이룸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학교를 메우는 듯 했다. 걸으면서 하는 활동만큼 든든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학교에 방문한 졸업생까지 함께 플로깅을 떠났다. 서울숲에는 이룸 친구들의 마음처럼 예쁘게 단풍이 저 있었다. 장갑을 끼고 봉투와 집게를 들고 서울숲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니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쓰레기가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들고 있던 봉투를 어느새 두둑히 채우게 되었다. 무심코 지나다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고 우리의 작은 활동으로 깨끗해지는 환경을 보며 앞으로도 주변을 주의 깊게 보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활동들을 더욱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하루였다.

꿈에의 봉사활동

꿈에는 환경수업과 연계하여 학교 인근 탄천에서 5월과 10월에 플로깅을 진행했다. 다른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던 학생들도 오랜만에 밖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활기가 넘쳤다. 플로깅에 참여한 학생들 전부 평소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는지 몰랐으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실제로 지나다니는 길이다보니 유난히 더 열심히 쓰레기를 찾게 되었다.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며 즐거운 봉사활동을 마쳤고, 담배꽂이부터 마스크까지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보여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룸스쿨, 꿈에학교는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우리는 나와 주변을 살피고 나아가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한 '건강한 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했지 않을까!



이룸컬처클럽

분류 : 이룸스쿨 | 동아리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게!
EROOM CULTURE CLUB

1. 개요

이룸스쿨에서 2021년에 운영된 동아리.

올해 이룸스쿨은 많은 고민을 통해 **기존의 틀**을 해체하고 학교 중점 교육과정인 소통을 더욱 **확장**하여 학생들의 자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었고 이룸컬처클럽 활동으로 이루미들이 서로 문화와 **관심분야**를 공유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게다가 학생들의 **숨겨진 모습**과 **매력**도 엄청 발견했다. 각각의 숨겨진 매력을 정리했다.

- [1] 기존에는 이전 년도 평가를 토대로 교사들이 어느 정도 틀을 잡아두고, 학생들은 과목을 정하고 선택했다.
- [2] 이제는 학기 수업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논의해서 결정한다.
- [3] 관심분야라고 쓰고 '덕질'이라고 해석한다.
- [4] 덕질은 원래 약간 숨어서 하지 않는가!
- [5] 어떤 덕질을 하는지 알면 사람이 더 깊게 보인다. 신기할 따름. 오래될수록 고수가 되고, 고수는 맛있는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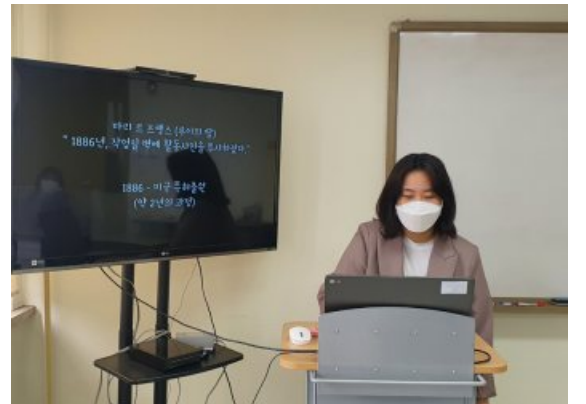
2. 발표자

2.1. 윤소정^[6]

- 인물소개: **학구적**인 모습을 가진 이룸의 교수님
- 주제: 미제사건 및 역사적 사건

평소 인터넷으로 즐겨보던 미제 사건, 역사적 사건들을 이룸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으며 실제 사건들을 정리했다. 윤소정은 **멋지게 만들어낸 자료**로 실감난 발표를 선보였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마치 스킬 넘치는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기분이었다. 이루미들은 윤소정이 평소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지 알게 되었다. 학구적인 모습을 엿보며 윤소정의 멋진 모습에 홀린 사람들도 많았다는 후문이 있다.

- [6] 교사들을 보면 찡긍거리는 게 윤소정의 특징
- [7] 모습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학구적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 [8] 파워포인트는 아닌데 무슨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만드는지 궁금하다. 퀄리티가 어마어마했다.
- [9] 마치 예전 번사(말씀씨가 아주 능란한 연설가)처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해주어 끝이 너무 궁금해지는 짜임새 있는 발표였다.
- [10] 미국 위키피디아 등 영문사이트에서 주로 다양한 사건과 역사들을 보고 즐긴다고 한다.





2.2. 석란스

- 인물소개: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11]을 지닌 이룸의 감성과
- 주제: 감성을 경험하기

이룸스쿨 학생들과 자신의 감성을 나누고 싶었던 석란스는 감성 공유를 위해 이루미들을 **대학로**^[12]와 **아쿠아리움**^[13]으로 이끌었다. 함께 연극을 보고 문화체험을 하며 석란스의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을 함께 느껴볼 수 있었고,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서 석란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석란스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14] 좋아한다. 또 적극적이고 **다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15]이었다.



- [11] 이룸에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다.
- [12] 연극 '라면'을 단체로 관람했다. 사실 담당교사의 세대에 맞는 작품이라 학생들은 공감을 좀 덜 했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담당교사 곧 40세...!
- [13] 학교와 가까운 잠실 롯데타워 아쿠아리움. 조명과 분위기가 아주 훌륭하다.
- [14] 개인프로젝트 주제도 (감성폭발)책 만들기와 (아기자기)네일아트이다. 석란스의 성격이 아주 많이 묻어나는 부분.
- [15] 활동마무리로 '석란스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주제로 이루미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었다. 따뜻함이 여기까지 느껴진다....더울정도...☺

2.3. 준수

- 인물소개: 이룸의 **맛 감별사**^[16]
- 주제: K-Cooking

자신의 레시피를 전수하고 싶어 했던 준수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냈다. 바로 **K-Pasta와 K-Pizza**^[17]! **준수만의 일급 레시피**^[18]를 이룸컬처클럽을 위해 이루미들에게 대공개했다. 처음에는 **의아**^[19]해했지만 이루미들은 어느새 그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었고, 따라가다 보니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었다. 이로 인해 준수는 **맛에서 만큼은 정확**^[20]한 사람임을 담당하게 확인받아 이룸스쿨의 맛 감별사로 등극했다.

- [16] ♪ 마우스(mouth)요리사. 활동 당일 요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만 할 뿐. 하지만 준수의 레시피를 따라가다 보면 맛은 확실하다. 집에서는 많이 하려나...
- [17] 김치+파스타, 김치+피자. 다들 집에서도 또 해먹겠다고 할 정도로 맛있다.
- [18]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고 술술 작성한다. 담당교사가 감놀했다는 후문
- [19] 순서만 적힌 레시피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레시피에 정확한 용량 같은 건 없다...
- [20] 사실 이전에 준수와 두꺼(떡볶이집)에 가셔도 김새가 보였다. 담당교사는 싫어하는 비율의 레시피로 준수가 제조를 했는데 맛있어서 당황했다는 후문. 이를 통해 준수의 맛 감별은 인정할 만 하다.



2.4. 희람샘

- 인물소개: **이룸의 멋쟁이**^[21] 미술샘
- 주제: ART CLASS

희람샘은 **유화**^[22]와 **펜화**^[23]를 소재로 미술수업을 진행했다. '**예술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24]'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미들에게 미술의 즐거움을 알려 주고자 이 수업을 기획했다고 한다. 두 번의 수업동안 희람샘은 자신의 미술 지식과 예술적 감각, **카리스마**^[25]까지도 짝짝 뽐냈다. 미술작업에 서툴렀던 이루미들에게 이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모두가 작품을 완성해 낼 수 있었고 다들 미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즐기는 거라는 걸 배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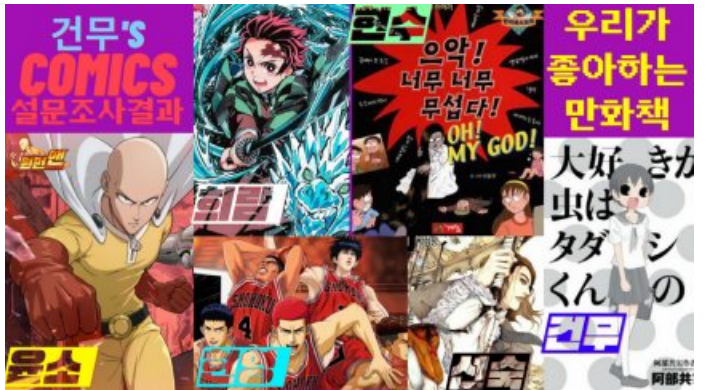


- [21] 175cm의 키 덕분에인지 입는 옷마다 멋이 철철 흘러 이룸의 비공식 멋쟁이로 등극. 얼마 전 담당교사는 그가 입은 롱 플리스에 반해 비슷한 걸 구매했으나 희람샘의 멋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후기.
- [22] 각자 원하는 그림을 먹지에 따서 캔버스에 그려내고 유화물감으로 채색함. 쉽게 그리는 방법과 평소 접하지 못한 미술재료를 경험해볼 수 있던 수업.
- [23] 원하는 그림을 얇은 네임펜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그리는 작업.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느꼈다.
- [24]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말의 변형. 희람샘이 수업 내내 중얼중얼했던 말이다.
- [25] 이루미들이 실수를 해도 태연하게 해결해주었다. 모두가 반했다.

2.5. 건짱

- 인물소개: **이룸의 완벽남**^[26]
- 주제: COMIC's

건짱의 취미는 만화 보기. 그래서 이루미들과 함께 만화카페를 가는 것으로 동아리활동을 계획했다. 그런데 만화를 보러간 카페에 음식이 너무 맛있어 어느새 이루미들은 **음식 먹기에만 집중**^[27]하게 됐던 옷 폰 비하인드... 이후 **평가모임**^[28]에서 건짱은 '좋아했던 만화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눔을 진행했고, 서로의 만화책 취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만화지식**^[29]과 추억을 나눴다. 건짱이 가진 다양한 만화 관련 지식과 **열정**^[30]! 그리고 스무스한 진행력 덕분에 활동이 아주 알차게 마무리 되었다.



- [26]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 특히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색칠할 때 그의 정확하고 완벽한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담당교사가 건짱에게 1:1로 강의를 두 시간동안 들은 적도 있다).
- [27] 잠실새내역 별тон 강중. 음식이 적절히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 투성이이다. 이 날 사진도 음식사진만 한~가득일 정도로 맛있었다.
- [28] 활동 후 평가모임은 필수. 활동에 대해 돌아보며 서로 더 알게 되는 시간. 특히 좋아했던 만화책을 얘기하면서 추억에 푹 잠겼다.
- [29] 만화를 어릴 때부터 꽤 많이 본 듯하다.
- [30] 평소 조용한 편이지만 이때는 그렇게 신나보였다!



현장스케치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활동을 정한다!

꿈에학교 퍼실리테이션 진로교육

퍼실리테이션

이름스쿨에 다니거나 다녀본 적 있는 학생들이라면 너무도 익숙한 단어
이겠지만 꿈에학교 학생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단어.

올해는 꿈에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으로 교육활동을 만들고 누리게
해주고 싶단 작은 소망을 갖고 퍼실리테이션을 시도해봤다는데... 처음
엔 생소했지만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직접 청소년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진행까지 하게 된 꿈에학교 퍼실리테이션 교육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처음 시작은 가볍게. 우리 같이 밥 먹자!

꽃피는 4월, 꿈예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처음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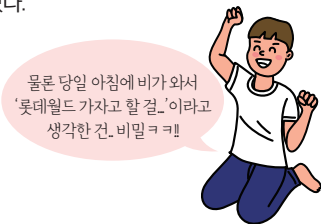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한국인은 밥이지!'라는 생각에 학생들과 함께 밥을 만들어 먹기로 결정했다!

어떤 메뉴를 만들어먹을지 결정하는 회의를 시작하자 처음 의견을 내보는 학생들은 무엇을 써야 할지 걱정하며 조심조심 메뉴를 작성해냈다. 의견을 모은 결과 떡볶이, 파스타, 삼겹덮밥 세 가지 메뉴가 결정되었고, 조를 나누어 요리를 시작했다. 요리 맛이 가지각색이긴 했지만 우리가 의견을 내서 결정하고 만들어 낸 첫 요리라는 데에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 나가서 놀아보자!

외부활동에 격해지는 반응들! 그래도 퍼실리테이션 한번 해봤다고 어색함이 많이 없어진 모습이 보였다. 물론 아직도 어색해하며 “ 쌤들이 그냥 정해주시면 안 돼요?”라며 울상 짓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눈치껏, 혹은 진짜 가고 싶은 곳들, 활동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써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한국 민속촌! 땅땅땅!!! 한복도 입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는 활동 장소였다.



민속촌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즐거웠는지 '다음에는 어디가요~', '여기도 가요!' 하며 여러 친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반가워하며 '그럼 다음 회의에서 한번 이야기 해봐~'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어? 한번 진짜 해봐?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며 꿈예학교 쌤들의 머릿속에는 '어? 잘하면 우리 학생들이랑 함께 해 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12월, 방학 전 약 2주의 시간에 함께 할 활동들을 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퍼실리테이션 전문가이신 정민규 선생님과 함께 교육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정민규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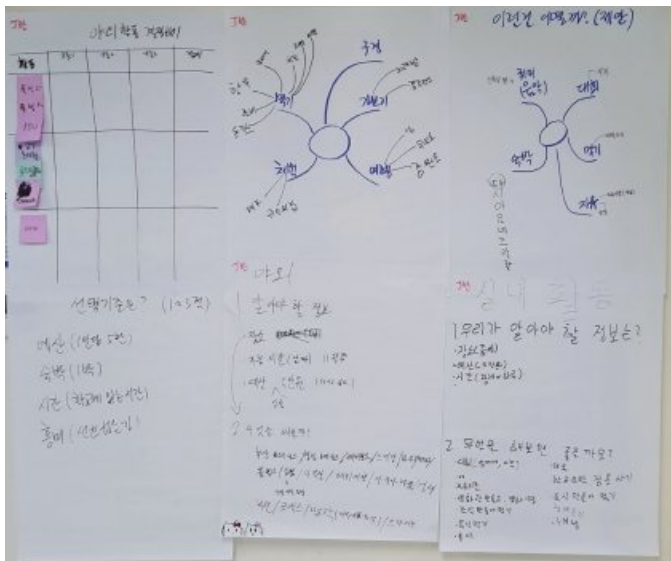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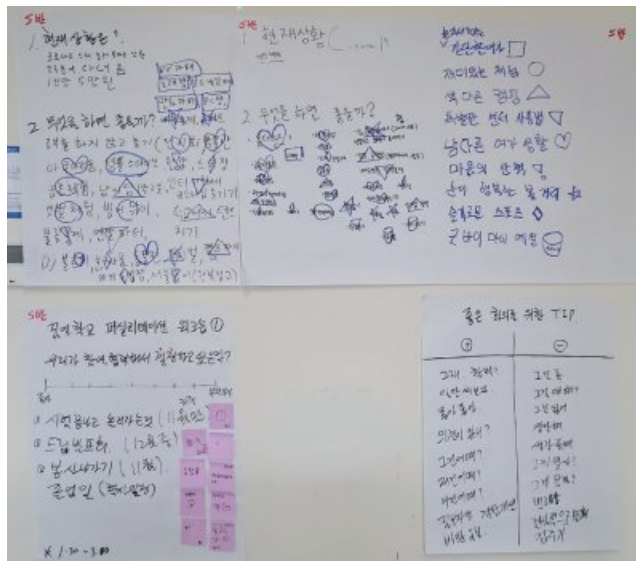
“학생들이 진행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꿈예쌤들

“한번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 볼게요!”

3학년 학생 4명을 학생 퍼실리테이터로 선정했고, 선생님을 만나기 전, 김민혁 퍼실리테이터님께서 위밍업으로 2학기 함께 밥상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보았다. 그동안 선생님들이 진행했던 회의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와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민혁

“제가 생각 했던 것 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결정하고 음식을 만드니 평소 밥을 잘 안 먹는 학생들까지도 바닥을 싹 싹 비울 정도였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고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었다.

학생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꿈예학교 퍼실리테이션교육

드디어! 퍼실리테이션 전문가 정민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날이 다가왔다.

2개 반에서 각각 2조로 나누어 4그룹을 만들고, 각각 한 명의 학생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았다. '좋은 회의'에 대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나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졌다.

정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함께 나눠볼 수 있게 촉진하고, 나온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퍼실리테이터로서 고민하며 회의를 이끌어보았다. 학생들의 참여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다. 학생 퍼실리테이터를 돕겠다고 자처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의견을 내는 참여도도 훨씬 높아졌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꿈예학교 학생들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열린 회의를 통해 11월 날 좋은 어느 날 나들이를 다녀왔고, 덕분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리프레쉬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12월,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학생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우리의 활동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내 의견이 실현되는 경험을 하면서 의견을 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 꿈예학교 학생들이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앞으로의 꿈예학교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학교, 오고 싶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 퍼실리테이터 후기!!!



송창규

평소에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오디세이에서 진행을 해봤던 경험 때문에 자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나와서 대처능력아랑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의 진행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걸 알게 되었다. 또 애들이 의견이 많아서 좋았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회의가 갑작스럽게 잡히는 적이 많아 마음의 준비를 잘 못해서 진행이 비교적 아슬하게 됐던 것 같아서 아쉽다. 평소에도 얻고 싶었던 능력 중 하나를 연습해볼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하게 느껴졌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이승우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터' 라는 단어와 역할을 알아보니 재미있을 것 같고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퍼실리테이터로 자원을 하게 되었다.

첫 회의 때는 퍼실리테이터로서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작은 회의였어도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다. 물론 어렵기도 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고 어리둥절했지만 몇 번의 회의를 보고 경험해보면서 많이 알아갔다. 선생님들의 의견 보단 여러 학생들의 생각과 기분들을 모아서 결정해서 그 결정으로 실천한다는 것에 큰 뿌듯함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친구들끼리의 회의, 동갑 퍼실리테이터들의 회의가 어렵지 않고 오히려 편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내 고3 인생에서 의미 있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언제나교육해DREAM

코로나-19 때문에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드림센터 교육팀 선생님들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바로바로...!

2021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언제나 교육해DREAM>!

총결산 다시

보여DREAM



퀴즈 풀러
오세요~!

평소 우리가 무관심으로 지나치던 것,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퀴즈로 만들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능력치(?)를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언제나 교육해DREAM>!
새로운 모습의 교육해DREAM은 어떤 것들을 알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총결산을 보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6.25전쟁
#민주항쟁기념일
#의병의날

“아동학대 No!”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코로나-19 조심!
안전수칙을 지키며
여름휴가 보내기

“독도는 우리 땅”

#안용복 #독도의날
#지증왕13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우리땅

“대안교육”이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 다양한 개성들!
- 특성화된 교육!
-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

검정고시?

-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위대한 유산: 한글

세종대왕 집현전
10월 9일 문화
한글날 훈민정음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도 많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아닌 '우리'에 대해 알게 해주는 질문들이 많아서 유익했다. 나는 이렇게나 좋았는데 아직 교육해DREAM을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쉽다. 오지랖일수도 있지만 혼자만 알긴 아까운 교육해DREAM이다.

교육해DREAM에서 진행하는 퀴즈들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정보들을 알 수 있었던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이런 접근성 높은 홍보가 계속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퀴즈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새로운 내용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고 나중에는 공부하는 기분으로 교육해DREAM에 참여했다. 답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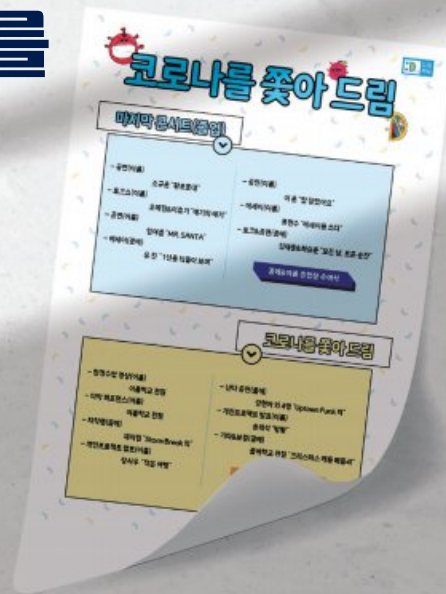
아동학대에 대한 동정의 감정은 있었지만, 깊은 관심을 주진 않았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대안교육에 대한 나쁜 인식, 나쁘게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안학교...! 청소년 모두를 위한,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독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은 정도로 유익했던 교육해DREAM이었습니다.

검정고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 드림발표회를 추억하며



준비

작년 이맘때쯤 우리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매년 외부 대강당을 빌려 아이들과 함께 부지런히 발표회를 준비했었고,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한 해의 끝자락을 함께 즐겼던 그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할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점점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 또 이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팀 교사들은 고민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드림발표회를 포기할 수만은 없었던 우리!

“그래!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자!” 그렇게 우리는 드림발표회 사상 최초로 비대면 드림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다행히 소규모 학교로서의 모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우리는 모임을 최소화하였고, 기획부터 컨셉, 주제 선정까지 차근차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준비하게 되었다.

다양한 관심사와 이슈를 담았던 여러 의견 중 선정된 2020년의 주제는 “코로나를 쫓아드림” 어쩌면 2020년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조금 늦게 천천히 발표회를 준비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했다. 외부로 나갈 수 없어 센터 내부에 전시회장과 무대를 꾸미고, 음향과 조명을 설치하니 제법 빛이 났다.



사전녹화

그렇게 우리는 “온라인 유튜브 LIVE”로 발표회를 진행하기 위해 평소 보다 조금 늦은 2020년 12월 16일! 각 공연별 사전 녹화를 진행하였다. 이룸스쿨 전체 학생들의 카타 공연을 시작으로 자작곡 노래와 영상을 준비하여 발표한 이룸스쿨의 서우, 자작랩으로 공연을 준비하여 발표한 꿈예학교의 지원이, 꿈예학교 학생들의 난타 공연과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1부 공연 녹화를 잘 마칠 수 있었다.

2부 졸업식은 꿈예학교 재웅이와 승준이의 토크쇼와 감미로운 통기타 연주를 시작으로 꿈예학교 유진이와 이룸스쿨 현수의 감동이 있는 에세이 발표. 이룸스쿨 효기와 예원의 토크쇼까지 잘 진행되었고, 마지막 졸업자들을 위한 졸업장 수여식을 끝으로 녹화는 마무리 되었다. 비록 관객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말은 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아쉽게 녹화 당일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후 영상으로 대체하였다. 드림발표회가 기존처럼 진행되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렇게 녹화된 공연은 영상 편집 전문가의 손을 통해 공연 영상으로 재탄생했다.





라이브 방송

정확히 일주일이지난 12월 23일 수요일 저녁, 드림센터 5층 북카페에 우리는 다시 모였다. 바로 유튜브로 드림발표회를 LIVE 스트리밍 하는 날이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스트리밍 전문가까지 모셔왔다.

라이브 1부는 김현수 선생님의 사회로 졸업 발표들을 선보였다. 감사하게도 실시간 접속자 수는 무려 80명을 넘나들었다.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

이어진 2부 공연은 아이들의 공연. 특별 라이브 MC로 이룸스쿨의 훈이와 꿈에학교의 현아가 사회를 보게 되었다. 라이브였음에도 방송사고 없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교사들의 특별공연 “걱정말아요 그대”와 교사전체 인사를 끝으로 라이브 방송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21년 드림발표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들이었다. 함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었던 드림발표회. 그렇게 1년이 지난 2021년,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또 다시 고민한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위드림”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드림발표회를 “대면”으로 준비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선물해 주기 위해! 그 경험들로 세상에 나아가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육팀 사무실의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는다.



이룸스쿨
정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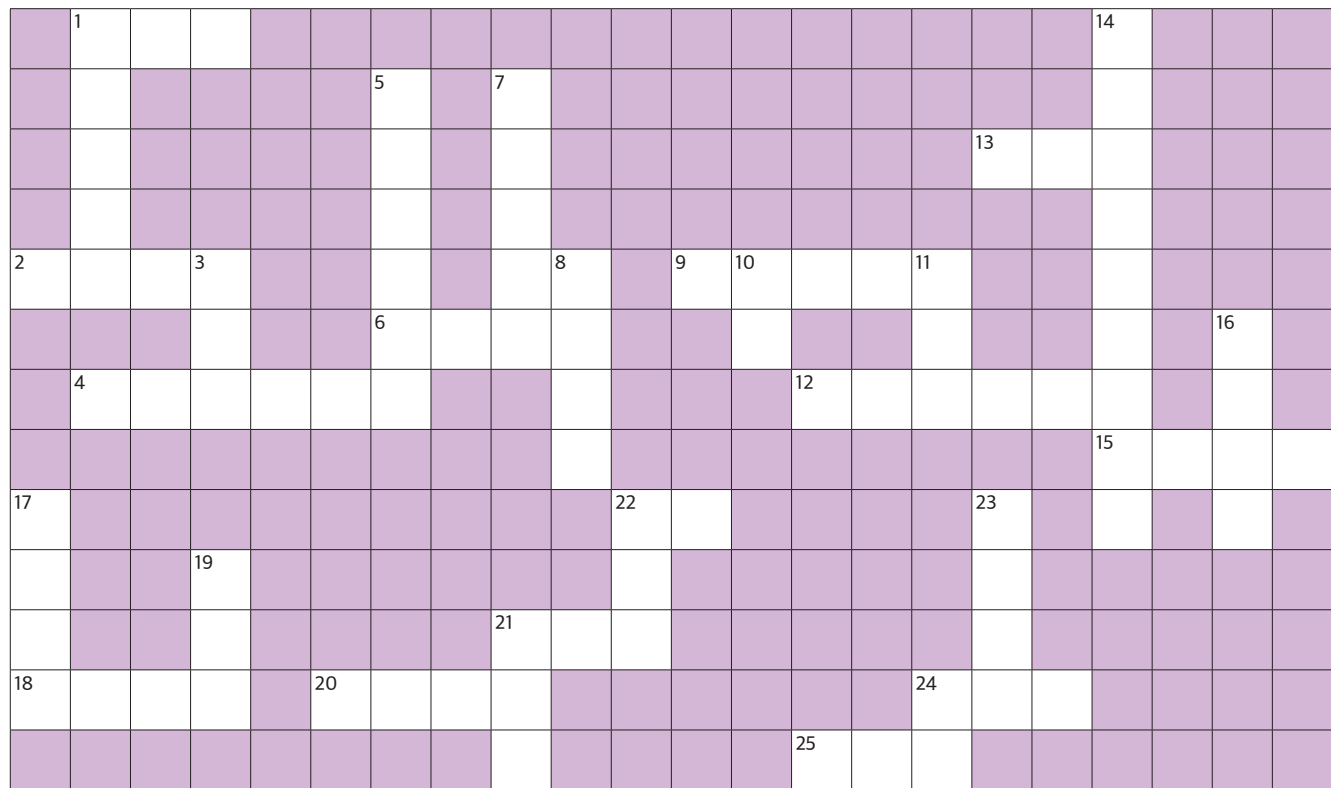


이룸스쿨
정희람



삶 바다 파도 그리고 태양
© 2021. 정희람 All Rights Reserved

삶에 바다를 빗대어 보자면 인생의 고난은 높은 파도라고 표현하고자 했다. 인생의 파도는 그칠 줄을 모른다.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도, 더 높은 파도가 일 수도 있는 법이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파도에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힘든 순간도 태양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이룸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그림은 지금 파도를 마주한 당신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이다.



가로퍼즐

1. 나의 진로,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
2. 매년 10월 교육팀에서는 이 주간이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연탄나눔 봉사가 있다.
4.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가치있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민주적 의사소통의 방식
6. 교육팀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공식적인 이름
9. 이룸스쿨과 꿈에학교가 갖는 인간상. 우리는 ○○○ ○○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꿈에학교에서 정식 수탁 이전 갖는 준비기간의 명칭
13. 개인의 관심사, 역량에 맞춰 운영하는 방식. 이룸스쿨과 꿈에학교는 개인 ○○○ 교육을 운영한다.
15. 학기 말에 보는 시험

18. 꿈에학교, 이룸스쿨을 운영하는 기관의 이름. 서울시립청소년 ○○○○
20. 검정고시 응시결과 전과목 평균 60점은 안 되어도 개별 과목이 60점이 넘는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 얻는 자격
21.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의 감정. 교육팀 선생님들의 무한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 한껏 자라나는 것
22. 다양한 경험과 체험, 학습을 통해 우리는 모두 이것을 이루어 낸다.
24. 일반 공교육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이르는 말. 이 청소년들은 이룸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25.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과정을 마친 학생. 올해 교육잡지에는 이 학생들의 이야기도 담겼다.

교육팀 낱말퍼즐

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낱말들로 퍼즐을 풀어보자.
낱말퍼즐 정답은 QR코드를 찍어 확인하세요!

응모방법

1.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모두 완성한다.
2. 완성한 퍼즐의 사진을 찍는다.
3. 드림센터교육팀 인스타 @dream_edu_dream을 팔로우한다.
4. 교육팀 인스타에 DM을 보낸다.
(완성사진 / 이름 / 연락처)

응모기한

2021년 12월 16일까지

당첨자발표

개별 연락 예정

세로퍼즐

1. 대안학교의 선생님을 일컫는 말.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교사
3.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 한패를 이룬 무리. 올해 이룸에서는 여행사진 무리, 영화감상 무리, 덕밍아웃 무리가, 꿈에에서는 손공예 무리, 실내체육 무리, 따릉이 무리가 운영 되었다.
5.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안내, 교육
7. 교육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대비 프로그램의 정식 이름
8. 작은 기타처럼 생긴 네 줄의 현악기. 올해 이룸, 꿈에에서 이것을 배우는 수업이 인기를 끌었다.
10.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주소는 서울시 ○○구 봉은사로 114길 43이다.
11. 구성원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 교육팀의 구성원들은 ○○○ 의사소통을 한다.
14.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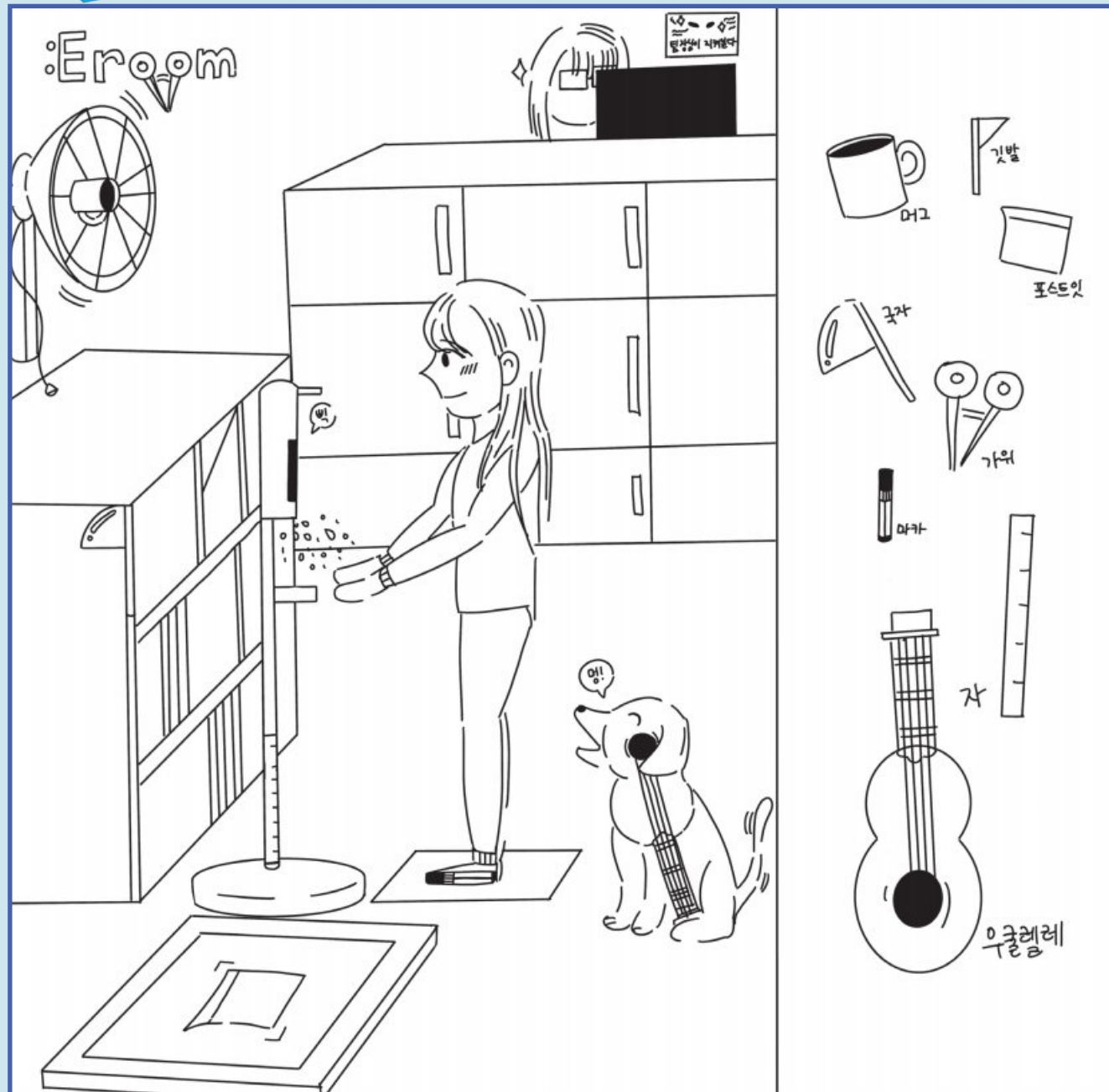
- 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 이룸스쿨도 이것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16.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실시되는 시험. 매년 4월, 8월에 실시된다.
17. 'Quick Response Code'. 이것을 스캔하여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19.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배우는 곳
21. 어떤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 2021년 1학기 꿈에학교 학생들은 ITQ에 응시하여 이것을 취득하였다.
22. 목적인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 뿌듯함. 학기말 개별프로젝트 발표회나 드림발표회에서 이 느낌을 느끼곤 한다.
23. 교육팀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위탁형대안학교)의 이름

숨은그림찾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팀

교육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손소독-열체크-QR체크 코스를 거치는 것은 이제 눈감고도 할 만큼 익숙해졌다. 손소독을 하는 그림 속 곳곳에 숨어있는 8가지 소품을 찾아보자. 알록달록 색을 칠해도 좋다!

일러스트 이룸스쿨 정희람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찾기 정답은 QR코드를 찍어 확인하세요!



응모방법

1. 숨은 그림을 모두 찾는다.
2. 다 찾은 그림을 사진을 찍는다.
3. 드림센터교육팀 인스타 @dream_edu_dream을 팔로우한다.
4. 교육팀 인스타에 DM을 보낸다. (완성사진 / 이름 / 연락처)

응모기한

2021년 12월 16일까지

당첨자발표

개별 연락 예정

올해 목공시간에 열심히 만든 전구가 밝게 빛난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꿈에학교 이승우, 임형진



온 우주의 힘을 모아!!

이름으로 와~!

서울현대안교육기관

이름스쿨

이름스쿨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대안학교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의 ☎
02-2051-9923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꿈에학교

학교 다니기 힘들어?

학교도
제법 다닐만해!

출발합니다-

뿌뿌-

오예!

문의 ☎

02-2051-9926

학생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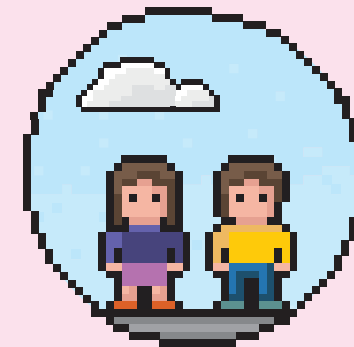
물망초

송창규

나는 당시에는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당시에는 좋은 결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노란 민들레 씨가 되어
멀리 날아가더라도
상처난 흰 장미가 되어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이 함께 뛰어놀던 그 때를
기억할게요
그리하여 나는 당신의 지나가다 피어오르는 웃음이
정리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쁨이 될테니
그러니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의 꽃말 '나를 잊지 말아요'에 영감을 받아 쓴 꿈에학교 송창규 학생의 시

www.dreamcenter.or.kr



:D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REAM